



수
이
기
출
제
의
평

Xistory stands for extra intensive story for an entrance examination for a university.

2024 수능 대비

Xi story

수능 국어 문학 실전

- ▲ 최신 7개년 수능, 모의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수록
- 최신 3개년 학평 전 문항, 6개년 우수 문항 수록
- ▲ 시, 소설, 수필 독해 공식으로 문학 작품 완벽 이해
- ▲ 문제 유형별 문제 풀이 꿀팁 적용 훈련
- ▲ 빠른 지문 이해를 위한 어휘 + 개념어 TEST
- ▲ 이것이 핵심!, 인물 관계도로 작품 간단 정리
- ▲ 풍부한 어휘 풀이, 매력적 오답, 꿀팁, 입체 첨삭 해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강의교재



김 태 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2022년 입학
서울 영일고 졸

Xi story Honors
[격려상 수상]



“갈래별 독해 공식에 따라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 유형에 따라 문제 풀이 훈련을 해보자!”

■ 기출 분석이 안되면 어떤 문제도 내 것이 아니다!

수험생이 되어 처음 치렀던 수능 국어는 말 그대로 역대급 불수능이었고, 수능 직후에는 ‘기출로는 부족하다’든지, ‘고난도 사설 문제를 풀어야 한다’든지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한 말이 정말 많이 나왔어. 수험생이었던 나에게 그런 말들은 혼란을 주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나 막막하기까지 했지. 그런데 한번 입시를 치러본 나는 결국은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말이 정답이라고 느껴졌어. 학교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그리고 기사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 결국에는 모두 입을 모아 수능 기출 풀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유명하다는 사설 문제를 풀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내지 못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나는 수능 국어 준비는 무엇보다 기출 분석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본부터 다지겠다는 마음을 먹었어. 그렇게 자이스토리로 수능 기출을 분석하고, 공부한 나는 수능 국어 백분위 98(언어와 매체 선택)의 성적표를 받았고,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어.

■ 지문을 정리하는 4단계 기출 분석법!

나는 다음 네 단계에 따라 기출을 분석했어.
1단계 실전처럼 정해진 제한 시간 내에 풀기.
2단계 채점하지 않고,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해가며 완벽히 독해하기.
3단계 2단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풀기.
4단계 정답을 고친 문제가 있다면, 첫 독해에선 어떤 포인트를 놓쳐서 답을 잘 고르지 못했는지 파악하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선택지의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답을 골랐는지, 아니면 지문의 어떤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답을 골랐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게 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출 몇 회독을 하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 실력이 늘지는 않아. 성적이 제자리 걸음 중이라면 이 기출 분석 단계를 따라 해봐.

■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 활용하기!

자이스토리 문학 실전은 갈래별 독해 공식에 따라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 유형에 따라 문제 풀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문학 독해에는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저 줄거리나 내용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1등급을 목표로 할 수 없어. 문학 작품은 갈래별로 표현 요소나 서술 방식이 다르고 특정한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한 수능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기는 어려워. 늘 시간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중요한 수험생들에게 자이스토리가 제시하는 독해 공식은 ‘보면 좋다’가 아니라 ‘안 보면 손해’라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

■ 자이스토리는 나의 사고과정을 올바르게 교정해 준다!

문학을 비롯한 국어 문제는 ‘근거가 이것이니 답이 이것이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논리적 과정과 왜 내가 그것을 떠올리지 못했는지를 알아야 해. 자이스토리의 가장 우수한 점은 여기에 있어. 나의 사고과정을 올바르게 교정해 준다는 것! 나도 자이스토리의 해설을 활용하기 이전에는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았고, 정답 근거를 명확히 찾지 못하고 잘못 독해하는 일도 많았어. 그런데 자이스토리의 해설을 꼼꼼히 읽어 보면서, 틀린 문제는 물론이고 맞힌 문제도 나의 판단 과정 중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알고 교정할 수 있었어. 그 결과 문제 푸는 속도, 선택지의 정오답을 판단하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을 뿐 아니라 정답을 맞히는 정확도 역시 크게 상승했어. 그리고 이렇게 탄력이 붙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정확도는 계속 더 높아졌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기본부터 충실하게 다져 나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수능이라도 두렵지 않게 될거야!



My Story Xi Story [수능 국어 문학 실전]

수능 문학은 철저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수능 문학은 주어진 작품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찾아 확실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철저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수능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자이스토리〉는
수능 문학의 모든 지문과 문제를 분석하였고,
모든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과
수능 문학 문제의 대표 유형에 대한 [문제 풀이 꿀팁]을 만들었습니다.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과 대표 유형별 [문제 풀이 꿀팁]으로
수능 문학을 공부한다면, 그 어떤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작품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라면,
이제 누구나 수능 국어를 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 국어 1등급을 경험하세요.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38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17		월	일	월	일
2	18~36		월	일	월	일
3	37~51		월	일	월	일
4	52~66		월	일	월	일
5	67~78		월	일	월	일
6	79~90 (+ 어휘)		월	일	월	일
7	B 01~12		월	일	월	일
8	13~27		월	일	월	일
9	28~36		월	일	월	일
10	37~55 (+ 어휘)		월	일	월	일
11	C 01~21		월	일	월	일
12	22~42		월	일	월	일
13	43~62		월	일	월	일
14	63~84		월	일	월	일
15	85~103		월	일	월	일
16	104~123		월	일	월	일
17	124~146		월	일	월	일
18	147~165 (+ 어휘)		월	일	월	일
19	D 01~19		월	일	월	일
20	20~37		월	일	월	일
21	38~57		월	일	월	일
22	58~77		월	일	월	일
23	78~92		월	일	월	일
24	93~112		월	일	월	일
25	113~129 (+ 어휘)		월	일	월	일
26	E 01~20		월	일	월	일
27	21~37		월	일	월	일
28	38~54		월	일	월	일
29	55~70		월	일	월	일
30	71~85		월	일	월	일
31	86~100		월	일	월	일
32	101~114		월	일	월	일
33	115~128		월	일	월	일
34	129~147 (+ 어휘)		월	일	월	일
35	F 01~17 (+ 어휘)		월	일	월	일
36	G 01 ~23		월	일	월	일
37	24~45		월	일	월	일
38	46~59 (+ 어휘)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자이스토리 문학 실전 단계별 독해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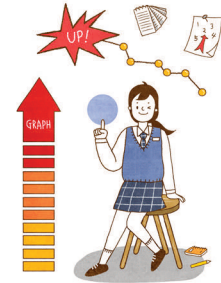
문학 갈래별 2 STEP 독해 훈련 과정을 거치면 어떤 갈래와 난이도의 문학 지문이라도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STEP I 독해 공식 이해	STEP II 독해 공식 적용
• 갈래별 독해 공식에 따라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훈련함. • 친절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지문 구조와 주제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함.	• 갈래별 독해 공식에 따라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직접 적용함. • 간단한 확인 문제로 지문의 핵심을 완벽하게 파악함.
• STEP I, II 각 단계에서 갈래별 대표 유형 문제 풀이를 통해 문제 접근 방법, 꿀팁 적용 방법을 훈련	

자이스토리 문학 실전 활용법+α

1 갈래별 독해 공식, 문제 풀이 꿀팁으로 문학 자신감 상승!

- 문학 갈래별로 최적화된 독해 공식을 반복하여 연습하면 어떤 지문이 나와도 두려움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갈래별 대표 유형에 대한 문제 풀이 꿀팁을 통해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수능 대비 기출문제와 1등급 킬러 지문 정복으로 국어 1등급 완성!

- 최신 수능 유형에 맞춰서 엄선한 수능 · 평가원 ·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면 수능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선별하여 '1등급 킬러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문제 풀이 TIP'을 통해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3 단원별 어휘+개념어 TEST로 마무리!

- 지문별 어휘·개념어를 빠짐없이 학습하고 '빠른 지문 이해를 위한 어휘+개념어 TEST'로 어휘 실력을 점검하세요.

4 입체 첨삭 해설까지 꼭 확인하고 다시는 틀리지 말자!

-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 모두 해설을 통해 자신의 풀이 과정을 점검해 보세요. 틀린 문제와 짚어서 맞힌 문제는 꼭 다시 풀어 봐야 합니다.
- 문제의 핵심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문제 분석, 근거, 선택지 첨삭 해설 등)도 잊지 말고 살펴보세요.



5 해설편에 수록된 지문, 선택지 어휘 익히기

-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어휘나 문학 개념어가 활용되는 문제는 고난도 문제가 아님에도 정답률이 낮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국어도 모르는 어휘와 개념어의 의미를 공부해야 합니다.
- 각 지문과 선택지 사이사이에 배치된 어휘 · 개념어 풀이를 활용해 소홀하기 쉬운 국어 어휘 · 개념어 공부도 놓치지 마세요.



차 례

A 현대시 11

STEP I -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2

[향아(신동엽) / 전문가(기형도)]

STEP II -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8

[산상의 노래(조지훈) / 나무의 수사학 1(손택수)]

Aa 성찰이나 의지가 드러나는 시 24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백석), 그 방을 생각하며(김수영),
설악부(박두진), 길의 노래(이기철), 황혼(이육사),
바다에서(김종길), 연륜(김기림), 대장간의 유혹(김광규),
사령(김수영),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김혜순), 맨발(문태준),
구두(송찬호),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이용악), 허물(정호승),
바람이 불어(윤동주), 새(김기택), 병원(윤동주), 나무(박목월)

Ab 추억과 회상, 그리움을 그린 시 38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이용악),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신경림), 꿈 이야기(조지훈),
나리 나리 개나리(기형도), 종가(오장환), 노래와 이야기(최두석),
설목(김남조), 겨울날(김광섭), 그리움(이용악),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이시영), 하나씩의 별(이용악),
귀고(유치환), 구두 한 켤레의 시(곽재구), 극빈(문태준),
출생기(유치환), 사람의 마음에 내리는 눈(김춘수),
고향 앞에서(오장환), 낡은 집(최두석)

Ac 자연과 생명, 사랑을 담은 시 52

채전(유치환), 음지의 꽃(나희덕),
경이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유치환),
달걀 속의 생 2(김승희), 수라(백석), 신의 방(김선우),
오월의 환희(김현승), 벚꽃 그늘에 앉아 보렴(이기철), 청명(김영랑),
초록 바람의 전언(고재중), 추일사정(김광균),
하늘과 돌맹이(오규원), 플라타너스(김현승), 달(정지용)

어휘+개념어 TEST 63

B 고전 시가 65

STEP I -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66

[규원가(허난설헌),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STEP II -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71

[방옹시여(신희)]

Ba 가사 · 민요 · 고려 가요 76

관동별곡(정철), 일동장유가(김인겸), 서경별곡, 만분가(조위),
연행가(홍순학), 탄궁가(정훈), 상사곡(박인로), 만분가(조위)

Bb 시조(+악장, 민요) 85

옹비어천가(정인지 외), 강호사시가(맹사성),
전원사시가(신계영), 어이 못 오던다,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정선 아리랑

Bc [가사+시조] 복합 89

어부단가(이현보), 소유정가(박인로), 희설(홍계영),
수월정청흥가(강복중), 탄궁가(정훈), 농가(위백규),
상춘곡(정극인), 고산구곡가(이이), 추풍감별곡, 월곡답가(정훈)

어휘+개념어 TEST 98

동아리 소개 / 서울대 TNT 100

C 시, 수필 복합 101

STEP I -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02

[별 - 금강산시 3(박두진), 길(신경림), 편지(백석)]

STEP II -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12

[오룡가(주세붕), 차마설(이곡)]

Ca [시+현대 수필] 복합 117

도산십이곡(이항), 지수정가(김득연), 경재의 빛(김훈),
명월음(최현), 입암이십구곡(박인로), 염소(윤오영),
사시가(황희), 지도사(조우인), 그 시절 우리들의 집(공선옥),
매호별곡(조우인), 다방찬(채만식), 유객(김시습),
율리유곡(김광옥), 조어삼매(김용준), 단산별곡(신광수),
자전거 여행(김훈), 산민육가(이홍유), 유산가, 산정무한(정비석),
휴전선(박봉우), 우포늪 왓새(배한봉), 주을온천행(김기림),
비가(이정환), 풍란(이병기), 향현(박두진),
우리가 물이 되어(강은교), 눈(박이문)

Cb [시+고전 수필] 복합 142

성산별곡(정철), 병산육곡(권구), 율정설(백문보), 역사(신석정),
빈집의 약속(문태준), 의훈(김석주), 별사미인곡(김춘택),
님으랴 회양 금성(이정보),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박지원),
초가(이육사), 거산호 2(김관식), 담초(이육), 풍아별곡(권익룡),
아외송시유감(박은), 서파삼수설(유방선), 사미인곡(정철),
창 밧귀 위석버석(신희),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유분하),
산중잡곡(김득연), 영삼별곡(권섭), 침류대기(이수광),
낙빈가, 규정기(조위), 견회요(윤선도), 마환우설(홍성민),
월선헌심육경가(신계영), 어촌기(권근), 유원십이곡(안서우),
조용(성현), 면앙정가(송순), 강호구가(나위소),
석가산폭포기(채수)

Cc [시+설명문] 복합 172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만흥(윤선도), 우연(이덕무),
한겨십팔곡(권호문), 추억에서(박재삼),
고전 시가와 현대 시에서의 리듬, 두보나 이백같이(백석),
가재미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문태준),
시에서의 장소, 동물원의 오후(조지훈),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김현승),
문학에서의 이미지,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서정주),
살구꽃(장석남), 문학 작품에서의 은유, 강 건너간 노래(이육사),
묘비명(김광규), 삶의 반영으로서의 시, 문학적 시간,
고풍 의상(조지훈), 결빙의 아버지(이수익),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동동, 가시리

Cd [시]가 포함된 설명문 187

시조의 노년 표현법, 나의 미평한 뜻을, 갈 제는 청산이러니,
동풍이 건듯 부러(김광옥), 청춘 소년드라(정철),
늙기 설은 줄을(김삼현), 세월이 여류하니(김진태),
애정 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 달 뜨자 배 떠나니,
객창 돛는 달의, 주름에 빚친 달과, 내 마음 버혀 내여(정철),
달아 밝은 달아, 개를 소재로 한 시조의 변모 양상, 개야 쓰치 말라,
개야 좇지 마라,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살구

어휘+개념어 TEST 193

D 현대 소설 195

STEP Ⅰ - 지문 분석 특강+문제 풀이 특강 196

[미스터 방(채만식)]

STEP Ⅱ - 지문 분석 특강+문제 풀이 특강 202

[묘지 근처(윤홍길)]

Da 억압과 대립의 시대를 반영한 소설 207

폐어인(최명익), 양(윤홍길), 속삭임, 속삭임(최운),
무사와 악사(홍성원), 무정(이광수), 무제(윤홍길),
토지(박경리), 쥐잡기(김소진), 삼대(염상섭), 잔등(허준)

Db 근대화, 산업화의 이면을 담은 소설 230

쓰러지는 빛(최명희), 견습 환자(최인호), 무기질 청년(김원우),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윤홍길), 차나 한잔(김승옥), 동맥(조정래),
고향(이기영),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성석제),
황홀한 실종(이창준), 한계령(양귀자), 관촌수필(이문구),
눈이 오면(임철우), 큰 산(이호철)

Dc 인물 내면의 갈등을 그린 소설 258

크리스마스 캐럴 5(최인훈), 새의 선물(은희경),
시막을 건너는 법(서영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임종(염상섭), 자전거 도둑(김소진), 자서전들 쓰십시다(이창준),
비 오는 길(최명익), 나목(박완서), 옛 우물(오정희)

어휘+개념어 TEST 279

E 고전 소설 281

STEP Ⅰ - 지문 분석 특강+문제 풀이 특강 282

[민시영전(작자 미상)]

STEP Ⅱ - 지문 분석 특강+문제 풀이 특강 289

[웅고집전(작자 미상)]

Ea 영웅·군담 소설 296

장풍운전, 진성운전, 박태보전, 최고운전, 김학공전, 조웅전,
김진옥전, 임장군전, 용문전, 홍길동전, 옥주호연, 최척전(조위한),
홍계월전

Eb 전기·가정·애정 소설 323

최척전(조위한), 정수정전, 소현성록, 이태경전, 속향전,
채봉감별곡, 반씨전, 설날자전, 김인향전, 유씨삼대록, 양몽전,
사씨남정기(김만중), 적성의전, 옥단춘전

Ec 우화·가전체·판소리계 소설 352

배비장전, 심청전, 장끼전, 토끼전, 흥부전, 국순전(임춘)

Ed 두 작품 복합 364

윤선옥전, 이공본풀이, 김씨열행록, 검녀(안석경),
선율 환생(일연), 설흥전, 박씨전, 조보

어휘+개념어 TEST 375

F 극 문학 377

STEP Ⅰ - 지문 분석 특강+문제 풀이 특강 378

[불모지(차범석)]

STEP Ⅱ - 지문 분석 특강+문제 풀이 특강 385

[공동 경비 구역 JSA(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수능 대비 기출문제 390

제향날(채만식), 소(유치진), 결혼(이강백), 원고지(이근삼)

어휘+개념어 TEST 396

G 소설 복합 397

STEP Ⅰ - 지문 분석 특강+문제 풀이 특강 398

[우리나라의 전기소설, 김현감호(작자 미상),
이생규정전(김시습)]

STEP Ⅱ - 지문 분석 특강+문제 풀이 특강 408

[전우치전(작자 미상), 전우치(최동훈)]

Ga [소설+설명문] 복합 416

고전 소설의 기이성, 금령전, 심청전,
전쟁 소설의 이해, 박씨전, 시장과 전장(박경리)

Gb [소설+극], [소설, 극+시] 복합 423

갯마을(오영수), 갯마을(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천변풍경(박태원), 오발탄(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겨울 뚝부기(오정희), 천년학(이창준), 춘향전, 춘향이별가,
토지(박경리), 토지(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구름의 파수병(김수영), 느낌, 극락같은(이강백),
독 짓는 늙은이(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황순원)

어휘+개념어 TEST 443

동아리 소개/서울대 이미지밴드 444

수록 작품 찾아보기 445

빠른 정답 찾기 448



독해 공식+문제 풀이 꿀팁으로 쉽고 빠르게 국어 1등급 완성!

1 7개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 훈련

- 문학 작품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7가지 갈래로 구분하고, 갈래별 특징에 맞게 독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 문학, 수필, 시 복합, 소설 복합’ 7개 독해 공식으로 수능 문학의 모든 지문을 체계적으로 읽어 낼 수 있습니다.

A 현대시

회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며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현대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 현대시 독해 공식 적용하기

- 1 회자, 중심 대상 찾기 - ○ 표시하기
- 2 회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밑줄 긋기
-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강조 찾기

현대시 쉽게 읽는 법

회자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에 주목하기

STEP 1

[A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6월/평가원 22~24]

(가) 눈오다놓은 산마루
[A] 낡은 고목(古木)에 꽃 박힌 듯 기댄여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나) 여기 눈오다놓은 산마루
[B] 밝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山)상의 노래>

아이 이 아월

3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문제 풀이 특강

- 문학 갈래별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선별하고, 각각의 풀이법을 꿀팁으로 정리했습니다.
-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따라 최신 지문과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아가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문제 풀이 특강

A01 작품 비교하기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절상(絶頂)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라 ~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 정지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 상상한 마을말로 돌아가자

(가)는 과거의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권유하고 있으며,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추세를 암시하고 있다. (○) * ㉠: (나)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로 채워졌다. / 아이들이 ~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 평소와 달리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 총살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나)는 이상한 '그'가 이시 온 이후 글썽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유리 담장'과 같은 형상으로 대상을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작품 비교하기 유형

(가), (나)의 사상 전개 및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 후 두 작품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② 선택지의 설명이 (가), (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설명인지, 주어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A02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정지나무 마을'로 회자가 돌아가고자 하는, 공통체적 삶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노동하고 놀아도 즐겁던 공간입니다.

• ㉡: "그 글썽으로 아이들이 놀던 공간이었으나 시일이 지난 후 폭력적 억압만 나타나는 노동의 공간입니다."

③ 노동과 놀이를 중심으로 두 공간의 성격을 비교하여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5 빠른 지문 이해를 위한 어휘 + 개념어 TEST

갈래별 학습이 끝난 후에는 관련 어휘를 테스트하며 복습할 수 있습니다.

A 빠른 지문 이해를 위한 어휘 + 개념어 TEST

※ 사전적 의미 이해하기

[01~08] 다음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무궁하다 사늘하다 산물 스러지다
아로새기다 이룩하다 자당 항명

01 형상이 깨끗하고 선명한. ()

02 마음속에 토닥이 기억하여 두다. ()

2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지문 분석 특강

-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을 기출 문제에 실제로 적용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 **STEP 1** → **STEP 2** 순서에 따라 공부하면서 빈칸을 채우는 훈련을 하면 독해 공식과 문제 풀이 꿀팁이 저절로 체득됩니다.
- **STEP 1**: 독해 공식 이해 훈련
- **STEP 2**: 독해 공식 적용 훈련

STEP 1

제목 + 문제 <보기> 체크

- (가) 제목: <향아>로, '향'이라는 시적 청자를 부르고 있어요.
- (나) 제목: <전문가>로, 시적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 문제 <보기>: <보기>를 통해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STEP 2

A06 [보기] 분석

- (나)의 화자: 가로수를 통해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함.
- 도시의 가로수: 도구적 가치에 의해 평가됨.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도 꽃을 피움. → 화자는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4 수능 대비 기출문제

수능 유형에 꼭 맞는 수능 · 모의평가 ·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갈래별 · 주제별 ·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Ba 가사 (+고려 가요) 수능 대비 기출문제

[B07~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적선 이적 이적 고리 의논하게 되면
예산이 이적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 정철, <한별곡>

※ 호의(好意): 원 계교(原 計交)에 같은 지마(知)로 뜻을 가리킨다.
※ 세로 및 주한: 송나라 때 서조에서 학을 자식으로 아가여 삼았던 손자(孫子) 일로.
※ 동행: 동행하다.
※ 송행(送行): 송: 그날의 베풀어 지은 송
※ 여산: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시구에 나오는 중국의 명산

B07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당강대'에서 '전원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전원대'와 '불행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③ '개심대'에서는 선정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정이 서술되고 있다.

- 제한 시간: 수능 실전에서 한 지문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
- 난이도: *** - 상, *** - 중, *** - 하
- 출처 표시: 수능, 평가원 - 대비 연도, 학력평가 - 실시 연도

예) 2022/수능 30: 2021년에 실시한 수능

2022(6월)/평가원 31: 2021년 6월에 실시한 모의고사
2021(3월)/교육청 32: 2021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2023 대비 수능 18: 2022년에 실시한 수능
2023 대비 6월 모평 19: 2022년 6월에 실시한 모의평가
2022 실시 3월 학평 20: 2022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김영신 용인 서천고등학교
김철주 경기 우성고등학교
김효진 경기 현화고등학교
노승연 서울 경기고등학교

노준철 경기 서해고등학교
유은지 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
이세영 수원 수일고등학교
최슬지 서울 수명고등학교

최용창 경기 심석고등학교
최은아 경기 심석고등학교
최혜민 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
한혜령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감수진]

강영석 서울 대성학원
공재혁 울산 훈민정음학원
곽승협 울산 지렛대국어학원
김근호 양주 한샘학원
김미옥 대구 틀을잡는학원
김병훈 광주 서강고등학교
김용관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
김용길 천안 월봉고등학교
김용한 남양주 동화고등학교
김용환 안양 평촌대사나루국어학원
김주혁 서울 장훈고등학교
김준실 고양 이루는학원
라성경 대구 언어와사고국어학원
문기윤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문상철 부산 지식인학원
박병용 의정부 채리티크리스천아카데미
박상우 광주 화수분아카데미
박선훈 고양 이데아국어학원
박수용 서울 장훈고등학교
박영민 고양 이지베스트학원

박지현 김종길국어논술학원 오목관
박지혜 천안 중앙고등학교
박진운 시흥 박진운국어전문학원
배한철 서울 청산미래와사람들학원
손정아 고양 이투스네오
신민진 광명 열림국어
신창근 고양 대세국어학원
안효선 광주 송원고등학교
어수모 울산 어수모국어논술학원
오훈 서울 강북청솔학원
유승이 고양 제이클래스
유준 광명 진성고등학교
윤욱준 서울 상아학원
이동미 용인 보정고등학교
이루하 울산 이루하교육그룹
이미정 고양 킴플러스학원
이선영 천안 중앙고등학교
이영창 용인 성지고등학교
이진희 부산 이진국어전문학원
이찬호 의정부 북부세일학원

이한 서울 송파 청명학전학원
이효정 남양주 와부고등학교
임소민 부산 명지이강학원
임종빈 울산 임종빈국어학원
정석영 울산 하늘연국어학원
정하윤 대구 편작국어학원
정혜련 남양주 진접고등학교
채수만 파주 교하고등학교
최옥미 동두천 비상아이비초학원
최정호 울산 최정호언어논술학원
최진아 고양 이앤케이학원
하대빈 용인 수지고등학교
한설희 동두천 열린학원
한용호 성남 분당 청솔학원
현예리 서울 장훈고등학교
홍성유 양주 덕정 한샘학원
홍인지 대구 홍인지국어학원
황계연 울산 (주)태화학원

수능 선배들의 **비법** 전수 - 수험장 생생 체험 소개

긴장되고 떨리는 수험장에서 선배들이
문제를 풀면서 겪은 생생한 체험과 나만의 풀이 비법을
자이스토리 해설편에 수록했습니다.

2023 응시



강 한
서울 배재고 졸업



권주원
서울 배재고 졸업



김보겸
광주서석고 졸업



김수정
부산국제고 졸업



김예은
부산 다대고 졸업



김준서
부산 대연고 졸업



김태산
광주서석고 졸업



김현서
경기 평택고 졸업



나인규
광주 국제고 졸업



명준하
광주서석고 졸업



박서영
부산 사직여고 졸업



박세민
광주 광덕고 졸업



백규민
대구 성화여고 졸업



선명신
순천복성고 졸업



유기범
익산 남성고 졸업



이민형
광주 보문고 졸업



이서영
대구 원화여고 졸업



장경은
서울 세화여고 졸업



장성욱
부산 대연고 졸업



정서린
서울 세화여고 졸업



조해인
서울 목동고 졸업



조현준
익산 이리고 졸업



최윤성
서울 양정고 졸업



홍지형
화성 안화고 졸업



홍채연
서울 한영고 졸업



황은준
경기 비봉고 졸업

2022년

강민성 부산 해운대고 졸 (성균관대 의예과)
강연욱 서울 한영고 졸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고현웅 광주서석고 졸 (전남대 의예과)
공준형 경기 우성고 졸 (가톨릭관동대 의예과)
김서운 경기 우성고 졸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김예리 서울 수명고 졸 (고려대 의예과)
김찬우 익산 이리고 졸 (전남대 의예과)
김혜음 경기 송신여고 졸 (서울대 인문대학)
박정빈 익산 이리고 졸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준현 전남 장성고 졸 (육군사관학교)
송홍준 광주 국제고 졸 (고려대 융합에너지공학과)
양예진 전주 상산고 졸 (이화여대 의예과)
오석우 공주 한일고 졸 (서울대 의예과)
오연주 전주 솔내고 졸 (서강대 사회학과)
이수현 대구 송현여고 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장인우 광주 고려고 졸 (서울대 인문학부)
전수현 경기 송신여고 졸 (한림대 의예과)
정지호 익산 남성고 졸 (경향대학교)
최준명 서울 양정고 졸 (KAIST 새내기과정학부)

2021년

강혜운 경기 수지고 졸 (서울대 인문계열)
김도원 인천하늘고 졸 (서울대 화학부)
김도훈 서울 배재고 졸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김민준 서울 장훈고 졸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재서 서울 양정고 졸 (연세대 산업공학과)
김준형 서울 중산고 졸 (경북대 치의예과)
박재현 경북 구미고 졸 (가톨릭대 의예과)
송의현 안산 동산고 졸 (원광대 의예과)
안지연 서울 창덕여고 졸 (서울대 인문계열)
윤 혁 서울 동양고 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이새영 서울 선린인터넷고 졸 (연세대 기계공학부)
이우민 경기 평택고 졸 (KAIST 새내기과정학부)
임예은 경기 동탄국제고 졸 (연세대 경제학과)
임종민 경기외고 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최서영 경기 동탄국제고 졸 (서울대 경제학부)
최주영 서울 보인고 졸 (가톨릭대 의예과)



문학 배열 및 구성 [662 문항 + 어휘 · 개념어 TEST 181제]

① 최신 7개년 수능 · 모의평가, 2022 수능 예시 전 문항 수록 (344 문항)

- 최신 7개년 수능과 모의평가, 2022 수능 예시 문학 영역 전 문항을 수록했습니다.

② 최신 3개년 학력평가 전 문항 수록 (196 문항)

- 최신 3개년 학력평가의 문학 영역 전 문항을 수록했습니다.

③ 최신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우수 문항 선별 수록 (122 문항)

최신 수능과 모의평가, 학력평가에 출제된 문항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④ 독해력의 토대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어휘 문항 수록 (181 문항)

- 기본적인 독해 실력을 쑥쑥 올릴 수 있도록 갈래별 핵심 어휘를 수록하였습니다.
- 문학 갈래별 빈출 · 주요 어휘를 점검할 수 있는 ‘빠른 지문 이해를 위한 어휘 TEST’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이스토리 문학 실전 문항 구성표]

대비 연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문항 수
2023	17	17	17	17	17	17	17	119
2022	17	17	17	17	17	17	17	119
2021	15	15	15	15	15	15	15	105
2020	15	5	15	4	15	3	15	72
2019	12	7	15	4	15	4	15	72
2018	6	4	15		15		15	55
2017			15		15		15	45
2016			8		16		15	39
2015			4		3		6	13
2014					6			6
2022 수능 예비								17
총 문항 수								662

2023학년도 6월, 9월 모의+수능

문학 문항 배치표 (홀수형 기준)

문항 번호	6월	9월	수능
18	E63	E59	E55
19	E64	E60	E56
20	E65	E61	E57
21	E66	E62	E58
22	C22	C01	C11
23	C23	C02	C12
24	C24	C03	C13
25	C25	C04	C14
26	C26	C05	C15
27	C27	C06	D46
28	D01	D93	D47
29	D02	D94	D48
30	D03	D95	D49
31	D04	D96	A67
32	A01	B37	A68
33	A02	B38	A69
34	A03	B39	A70



고전 시가

- Ba** 가사 (+ 고려 가요)
Bb 한시 (+ 약장, 민요)
Bc [가사 + 시조] 복합

★ 고전 시가 독해 공식

고전 시가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3단계 공식으로 어떤 작품이라도 스스로 독해할 수 있습니다.

★ 고전 시가

독해 공식

-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독해 공식 훈련

STEP Ⅰ: 고전 시가 독해 공식 **훈련** 단계

STEP Ⅱ: 고전 시가 독해 공식 **적용** 단계

★ 고전 시가 문제 풀이

고전 시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문제 풀이 꿀팁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꿀팁 작품 비교하기

한 작품을 먼저 읽고, 선택지를 가운데 오답을 거르세요.

꿀팁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가 적절 한지도 확인하세요.

꿀팁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화자의 감정(기쁨, 외로움 등), 태도(긍정적, 부정적 등)가 나타나는 표현을 찾으세요.

꿀팁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 앞뒤 문맥을 살펴 의미를 파악 하세요.

꿀팁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어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보기>와 지문에서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으세요.

★ 최신 3개년 수능 · 모평 출제 경향

학년도	출제 지문	난이도
2023	수능 도산십이곡(이황), 지수정가(김득연) * 현대 수필과 갈래 복합	**
	9월 어부단가(이현보), 소유정가(박인로)	**
	6월 사시가(황희), 자도사(조우인) * 현대 수필과 갈래 복합	**
2022	수능 탄궁가(정훈), 농가(위백규)	**
	9월 규원가(허난설헌), 재 위에 우뚝 선(작자 미상)	**
	6월 유객(김시습), 율리유곡(김광옥) * 현대 수필과 갈래 복합	**
2021	수능 사미인곡(정철), 창 밧고 워석버석(신흥) * 고전 수필과 갈래 복합	**
	9월 만흥(윤선도) * 설명문, 고전 수필과 갈래 복합	***
	6월 관동별곡(정철)	**

[수능] 빈출 작품인 이황의 연시조 <도산십이곡>, 김득연의 가사 <지수정가>가 현대 수필인 김훈의 <검재의 빛>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갈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담은 작품이 평이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9월] 빈출 작품인 이현보의 연시조 <어부단가>와 박인로의 가사 <소유정가>가 고전시가 단독 세트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문 내용은 어렵지 않았지만 시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함정에 빠져 실수를 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6월] 빈출 작품인 황희의 연시조 <사시가>, 조우인의 가사 <자도사>가 현대 수필인 공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과 갈래 복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는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2024 수능 예측 · 대비

• 최근 수능과 모평에서는 시조와 가사가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조와 가사의 경우 주제와 표현상 특징이 전형적이므로 기출 작품을 중심으로 대표 작품과 갈래별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고전 시가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생각과 감정, 태도를 통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고전 시가 독해 공식 적용하기

-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 표시하기
-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밑줄 긋기
-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괄호 치기

고전 시가 쉽게 읽는 법: 소리 내어 읽으며 발음이 비슷한 현대어를 떠올려 보기, 화자와 중심 대상 찾기

STEP I

[B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9월)/평가원 32~34]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연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A]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쫓소냐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B]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올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섯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땃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굵이굵이 끓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 다시: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C]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C]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쭈 하나니

- 작자 미상

B01 ***

2022(9월)/평가원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B02 ***

2022(9월)/평가원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B03 ***

2022(9월)/평가원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술이 상에 올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07 DAY

🌸 제목 + 문제 <보기> 체크

- (가) 제목: (가)의 제목인 <규원가>에서 '규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의 원한이라는 의미예요. 이를 통해 (가)는 이별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 문제 <보기>: <보기>를 통해 (가)와 (나)는 이별에 대처하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임을 알 수 있어요.

B03 [보기] 분석

이별에 대한 대처

- (가): 외부와 단절된 채 내면에 몰입,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
- (나): 외부 대상에서 자신과의 동질성 발견,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

🌸 고전 시가를 쉽고 빠르게 읽는 독해 공식입니다.

★ 고전 시가

독해 공식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지문 속 '나', '우리'는 화자를 가리킵니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중심 대상: 제목 혹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어가 중심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보다', '만나다' 등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 정서: '좋다', '슬프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 태도: 긍정적 · 부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하세요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화자의 어조, 비유적 표현, 시상 전개 방식 등 지문에 어떠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세요.

예 역설법, 단호한 어조, 수미상관

🌸 [가]에 독해 공식 ①, ②, ③을 적용해 봅시다.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내 얼굴 내 보거니'에서 화자인 '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화자는 세월이 지나 '면목가증'이 되고, 적막한 '부용장'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화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중심 대상은 '화자의 삶'이에요.

• 화자: '나', 중심 대상: 화자의 삶

②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거고나'를 통해 화자가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음이 드러나요. 또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에서 화자가 임의 부재로 혼자 지내고 있음이 드러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꺾소나'라며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행만 많다',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쳐어라'에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독수공방하는 화자의 외로움이 드러나고 있어요.

- 상황: 과거를 회상하며 늙어버린 모습을 한탄함. 임의 부재로 혼자 지냄.
- 정서: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임에 대한 그리움,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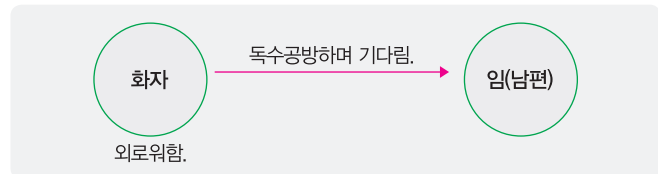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자연물인 '자최눈'과 '꽃은비'를 제시하여 화자의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객관적 상관물) '실술'에는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하고 있어요.(감정 이입)

또한 '소상야우의 뗏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의 별학이 우니는 듯'에서 고사를 인용하여 구슬픈 거문고 소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 표현상 특징: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 이입을 활용하고 있음. / 고사를 인용하고 있음.

* [가]의 구조와 주제를 정리해 봅시다.



(가)의 화자는 나이 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의 **주제**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이에요.

🌸 [나]에 독해 공식 ①, ②, ③을 적용해 봅시다.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나)에서 화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화자는 임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중심 대상은 '임'이에요.

• 화자: 드러나지 않음. 중심 대상: 임

②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옳거니와'를 통해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음이 드러나요. 또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도 드러나고 있어요.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쭉 하나니'에서는 슬픔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 상황: 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림.
- 정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느낌.
- 태도: 슬픔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가 드러남.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소나무'와 '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 표현하고 이를 나란히 두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대구법)

또한 '흔덕흔덕', '흔들흔들', '후루룩 비쭉'에서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을 사용하여 대상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 표현상 특징: 대구법을 활용하고 있음. /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음.

* [나]의 구조와 주제를 정리해 봅시다.



(나)의 화자는 소나무와 버들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며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확인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의 **주제**는 임과 이별한 슬픔이에요.

B01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A]는 세월이 지나 자신의 얼굴이 밍게 변했음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 [B]: [B]는 겨울에 자취눈이 내리고, 여름에 굶은비가 내리는 상황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 [C]: [C]는 소나무와 버들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 즉 [A]~[C]에 활용된 표현 기법과 그 효과를 파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근거: (가) ③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 '베오리'와 '북'은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로, [A]에서는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베틀에 북이 지나는 듯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표현〕: 형태의 묘사나 색채어 등을 사용하여 눈으로 보는 듯이 표현하는 것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근거: (가) ②, ⑤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섶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 [B]에서는 '차다'를 반복하여 겨울의 특성을, '길다'를 반복하여 여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근거: (나) ①, ②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 [C]에서는 '흔덕흔덕'과 '흔들흔들'이라는 의태어로 소나무와 버들이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의태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 [A]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고, [B]에서는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답은 ④!**

〔계절적 배경〕: 시적 상황이 발생한 계절로, '봄', '여름'과 같이 직접 제시될 수도 있고 '낙엽', '눈'과 같은 시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

*근거: (가) ②, ⑤, (나) ①, ②

- (가):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섶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 [B]에서는 '-제 -고'라는 문장 구조가, [C]에서는 '-에 -흔덕흔덕(흔들흔들)'이라는 문장 구조가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대구〕: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하는 방법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유형

- 풀이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가 적절한지도 확인하세요.

B02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꿈같이 만나 있어'로, '장안유협 경박자'를 임으로 만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 ㉡: ㉡은 '꿈에나 보려 하니'로, 부재한 임을 꿈에서나마 만나려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 즉 '꿈'을 활용하여 표현된 ㉠과 ㉡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근거: (가) ③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 화자는 뒤편이 좋지 못한 사람과 인연이 맺어진 것이 믿어지지 않아 '꿈같이 만나 있어'라고 표현한 것이예요.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근거: (가) ④, ⑤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 임은 현재 부재한 상태로, 화자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잠에 들어 꿈에서나마 만나려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②!**

-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근거: (가) ③, ⑤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 '장안유협 경박자'인 임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기대는 드러나지 않아요. 또한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잊지 않았어요.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근거: (가) ③, ㉡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은 화자가 입을 만났을 때를 회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은 곧 일어날 일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근거: (가) ③, ㉡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은 우연히 '장안유협 경박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은 입과 반드시 재회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유형

풀이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 앞뒤 문맥을 살펴 의미를 파악하세요.

B03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가)의 화자는 슬픔을 확장함으로써 이별에 대처하고, (나)의 화자는 슬픔과 거리를 둬서 이별에 대처합니다.
 - (가): 부재한 임으로 인한 슬픔과 한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 (나):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 즉** 이별에 대한 대처 방식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①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②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서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술이 상에 올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근거: (가) ⑬, 〈보기〉②문장

- (가):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올 제
- 〈보기〉: (가)의 화자는 ~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

㉠ (가)의 화자는 임의 부재로 느끼는 슬픔을 '실술'로 확장하여 '실술'이 운다고 표현했어요.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근거: (가) ㉡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 (가)의 화자는 자신의 연주를 들어 줄 임이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답은 ㉡!**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근거: (나) ①, ③, 〈보기〉③문장

-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옮겨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쪽 하나니
- 〈보기〉: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

㉠ (나)의 화자는 '소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이 '입'과 '코'를 비쪽거리는 자신의 모습과 유사함을 발견했어요.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근거: (가) ⑭, (나) ②, 〈보기〉②, ③문장

- (가):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 (나):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 〈보기〉: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 /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

㉠ (가)의 '삼춘화류'는 화자의 슬픈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대상이에요. 반면 (나)의 '버들'은 화자가 동질성을 느끼는 대상이에요.

- ⑤ (나)의 '후루룩 비쪽'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

*근거: (가) ⑬, (나) ③, 〈보기〉③, ④문장

- (가):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 (나):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쪽 하나니
- 〈보기〉: (나)의 화자는 ~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 /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 ~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

㉠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은 화자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에요. 반면 (나)의 '후루룩 비쪽'하는 '입하고 코'는 우스꽝스러운 묘사로 슬픔과 거리를 둔 채 표현한 것이에요.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유형

풀이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 앞뒤 문맥을 살펴 의미를 파악하세요.



제한 시간 6분

[E09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원수는 서번과 서달을 물리치고 황성으로 돌아가던 중 단원사에서 모친과 경패 남자를 상봉한다.

서로 그리워하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모친을 모시고 중당에 좌정하여 서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때 부인 양씨가 장도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내가 부친과 너를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어떤 두 여인이 절에 의탁하고자 하였는데, 그 모습과 사정이 나와 비슷하였기에 머리를 깎고 나와 스승과 제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후원에서 애절하고 원망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나기에 위로하러 갔더니, 옷을 만지면서 슬퍼하고 있더구나.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낭군의 신표라 하기에 더욱 보자고 하여 받아 보았더니 나의 솜씨였고 너의 옷이었다. 마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웠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정으로 믿을 만한 표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네 부친이 절강의 장도사에게 관상을 보이고 나서 생년월일시를 적어 비단 주머니에 넣어 옷깃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이 기억이 났다. 이것을 믿을 만한 표식으로 여겨 사오 년을 서로 아껴 주고 위로해 주며 지냈느니라.”

[A]

이것을 듣고 원수가 모친께 아뢰었다.

“소자도 그때 도적이 데리고 가다가 중도에서 버렸기에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남자의 부친이 데려다가 사랑하고 아껴 주시고 남자와 백 년의 가연을 정해 주었습니다. 또 통판이 계시하신 대로 호 씨의 구박을 견디다가 결국 남자와 이별하고 동서로 걸식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천행으로 서주의 왕 상서 댁에 의탁하여 왕 상서의 사환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서의 명으로 황성에 갔다가 천행으로 과거를 보아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B]

이어 서주에 내려가 왕 상서의 여식과 혼인한 이야기와 황성에 올라가 원천의 딸을 후궁으로 삼은 이야기를 부인과 남자에게 말씀 드리니 ㉔ 부인과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즐거워하였다.

원수가 다시 아뢰었다.

“천자께서 명하시어 소자를 불러 이르시기를, ‘서번과 서달이 삼십육도 군장과 도모하여 대국을 침범하였노라. 너를 대사마 대원수로 삼으니, 이 사인검을 가지고 정병 팔십 만을 조발하여 번국을 소멸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에 소자가 한 번 전장에 나아가 서번과 서달, 삼십육도 군장을 모두 소멸하여 천을 만분의 일이나마 갚고 돌아오다 서천관에 이르러 유숙하고 있을 때, 금산사 화주승이라 하는 노승이 꿈에 나타나 여남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남에 이르렀는데 또 그 도사가 꿈에 나타나 단원사를 찾아가면 절로 부모와 남자를 만날 것이라 하기에 이리로 온 것입니다.”

[C]

이렇게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리니, ㉕ 부인과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도사의 신기함에 감복하였다.

(중략)

원수는 행군의 여정이 피곤하여 잠깐 졸았는데, 전날 밤중 꿈속에 나타났던 도사가 또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원수는 부친을 눈앞에 두고 어찌 잠만 깊이 자십니까?”

그러고는 문득 사람이 보이지 않거늘, 깨어 보니 남가일몽이었다.

㉖ 마음이 뒤숭숭하였으나 도사의 영감과 신기함은 탄복할 만하였기에, ‘도사의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구나.’

하면서 혹시라도 부친을 찾을까 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여 각도와 각 읍의 자사와 수령을 모두 청하였다.

자리를 정하고 즐기며 차례로 술잔을 권했는데, 부남은 남방의 대관이었기에 부남 태수가 오른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잔이 두세 번 돌아간 뒤에 부남 태수가 눈을 들어 원수의 거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선풍도골이어서 천상의 선관이 하강한 듯하였다. 그런데 조금도 즐거워하는 빛이 없었고 차고 있던 ㉗ 장도를 만지면서 슬퍼하는 듯하였다. 이를 보고 ㉘ 부남 태수가 문득 풍운이 생각나 흐느끼며 생각하기를 ‘풍운도 살아 있다면 내가 주었던 장도를 만지면서 저렇듯이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며 자세히 보니 원수의 장도가 풍운에게 채워 주었던 장도와 똑같았다. 이에 마음속으로 너무 놀라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공경을 표하고 원수에게 물었다.

“원수가 차신 장도는 반드시 보검일 듯합니다. 황송하오나 한번 구경하고자 하옵니다.”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오히려 반기면서 장도를 끌려 주었다. ㉔ 부남 태수가 자세히 보더니, ‘이것은 정녕 자식 풍운의 칼이로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원수가 이에 더욱 이상하게 여겨 물어 말하였다.

“태수는 이 칼을 보시고 어찌 슬퍼하며 흐느끼십니까?”
태수가 아뢰어 말하였다.

“황궁하오나 하관이 앞뒤의 내력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 참군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인이신 양 참군의 부친 양 상서께서 대국으로 사신을 갔다가 연왕이 정표로 이 장도를 주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양 상서가 이 장도를 가지고 오셔서 대대로 전하는 물건으로 삼았습니다. 양 상서가 이 장도를 양 참군에게 전하였는데, 양 참군은 후사가 없고 따로 전할 데도 없어서 하관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도 이름은 연평검이니 하관이 매우 아끼던 것입니다. 제가 늦게야 한 아들을 낳았는데 용모가 비범하였기에 행여 단명할까 염려가 되어 절강의 도사에게 가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 살 이전에 부모와 이별할 것이라고 하기에 혹 이별하더라도 [D] 서로 잊지 않기 위해 장도를 자식에게 채우고 생년월일시를 써 비단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뒤에 난리가 났는데, 하관은 황명을 받아 가달을 치러 경사로 올라갔고, 처 양 씨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하관이 가달을 평정하고 돌아오니 천자께서 하관에게 부남 태수를 제수하셨습니다. 이에 부남으로 내려올 때 고향에 들렀더니 집은 비었고 처는 간 데가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사방으로 찾았으나 종적을 알 수 없어 홀로 부남에 도입하였습니다. 오늘날 원수가 차신 장도를 보니, 문득 자식이 생각나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 칼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바로 그 주머니에서 ㉕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를 내어 태수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하였다.

“소자가 불초자 풍운이로소이다.”

그러고는 지극히 애통해하니, 태수가 정신을 차리고 그 유서를 받아 보니 과연 자신의 친필이 분명하였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

E09

2022 실시 10월 학평 27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남 태수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의 종적을 알지 못한 채로 부남에 부임했다.
- ② 양 씨는 남자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고 나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다.
- ③ 원수가 도적에게 잡혀 있을 때 남자의 부친이 원수를 도적으로부터 구해 주었다.
- ④ 원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주의 왕상서 댁에 자신을 의탁했다.
- ⑤ 부남 태수는 원수의 기질과 풍채를 보고 원수가 자신과 닮은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E10

★ 1등급 킬러

2022 실시 10월 학평 28

<보기>를 참고하여 [A]~[D]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장풍운전>은 가족이 헤어졌다가, 주인공이 임신양명하고 큰 공적을 세우는 데에 힘입어 가족이 다시 만남으로써 가문의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서사가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독자는 이를 통해 인물들이 헤어져 각자 겪은 일들, 인물들이 새롭게 맺은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인물들이 겪은 일들을 서로 연계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 ① [A]에서 모친이 자신이 지은 원수의 옷을 낭군의 신표로 간직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B]를 통해 원수가 그 여인과 연을 맺은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어.
- ② [A]에서 원수의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원수의 관상을 보였다고 했는데, [D]를 통해 부친이 원수의 관상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있어.
- ③ [B]에서 원수가 한림학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C]를 통해 한림학사에서 대사마 대원수가 되어 가문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공적을 세웠음을 알 수 있어.
- ④ [B], [D]를 통해 원수와 부친의 이별이 두 사람에게 시련을 초래했지만 두 사람에게 조력자들을 만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음을 알 수 있어.
- ⑤ [C], [D]를 통해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원수가 가족과 재회하게 되는 노정에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어.

26 DAY

E11



2022 실시 10월 학평 29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들이 연민의 정서를 주고받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② ㉡은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달리 ㉡은 인물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비현실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과 달리 ㉠은 미래에 인물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⑤ ㉠, ㉡은 모두 인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표가 되고 있다.

E12

★ 1등급 킬러

2022 실시 10월 학평 30

㉠~㉤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원수가 한림학사를 제수받은 이후의 행적을 모친과 낭자가 긍정적으로 여겼다.
- ② ㉡: 원수의 모친과 낭자가 황제와 도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 ③ ㉢: 원수가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도사를 신뢰했다.
- ④ ㉣: 부남 태수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다.
- ⑤ ㉤: 부남 태수가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확신했다.

제한 시간 5분

[E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운은 학녹을 데리고 광주로 향하여 가다가 윤승지 님이 야간도주(夜間逃走)하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태후 유경만의 해를 입었구나!”

하였다.

계속해서 중원을 향하여 가다가 계량 월낙점이라 하는 주점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그 주점 사람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세상 천하에 불쌍한 사람도 많도다!”

하거늘 성운이 이상히 여겨 묻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불쌍한가?”

하니, 그 주점 사람이 말하기를,

“황도에 진상서라 하는 사람이 강남으로 귀양 갔는데, [A] 진상서는 귀양지에서 죽고 그 아들이 성묘 갔다가 불들리어 황도로 올라갔다.”

라고 하였다.

성운이 그 말을 듣고 대경질색(大驚窒塞)하여 물었다.

“언제쯤 이곳으로 지나갔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날 저물 때에 이곳으로 지나갔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성운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 싶어 학녹을 데리고 급히 쫓아갔다. 일주일 쫓아 옹주 경수 물가에 이르렀다.

이때에 강남골 하인이 성운에게, 하인들이 진상서의 아들을 결박하여 가지고 방금 물을 건너갔다고 알려 주었다. 성운이 급히 쫓아가 붙들고 보니, 결박된 사람이 누이인 성희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정말로 성희인 줄은 알지 못하고 우선 마음이 편치 않아 급히 달려들어 결박한 것을 풀어 주었다.

그 하인이 호령하며,

“어떤 놈이기에 나라 죄인을 임의대로 풀어놓느냐?”

하면서 성운을 치려고 하자, 성운이 분개하여 칼을 빼 들고 그 하인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성운이 진소저 앞에 나아가니, 진소저와 연향은 정신이 아득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다가 정신을 겨우 차렸다. 진소저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릴 적 성운의 얼굴이 자라서도 명백하였다. 소저가 놀라 성운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홍계월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 홍계월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고난 - 위기 - 극복’의 영웅 소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성 영웅의 형상을 그려 낸다. 특히 주인공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겪는 1차 위기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2차 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 중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① 신하들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인물로 홍계월을 적극 추천하는 것에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홍계월이 정체가 탄로 나면 나랏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홍계월이 궁궐에서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여 천자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은 2차 위기의 빌미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여공이 어린 홍계월을 구하여 입신양명하게 한 것에서 주인공이 1차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홍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사직을 보전하라는 명을 받은 것에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군.

인물의 구분

중요도에 따라	중심인물: 주인공이나 그에 버금가는 주요 인물	주변 인물: 주인공에 비해 비중이 작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
역할에 따라	주동 인물: 중심 사건을 주도하거나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의 방향에 따르는 인물로, 대개의 주인공이 이에 해당함.	반동 인물: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의 방향을 따르지 않아 주인공과 대립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서술자의 위치

		작품 속	작품 밖
서술 범위	속마음까지 제시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객관적으로 관찰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작가) 관찰자 시점

서술자와 시점

- 서술자: 소설 속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관계: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따라 1인칭 서술자와 3인칭 서술자로 구분

1인칭 서술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일 때, ‘나’라는 1인칭으로 나타남.
3인칭 서술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할 때는 3인칭으로 나타남.

- 서술자의 개입(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을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
- 시점: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나 입장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작품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작가가 마치 신처럼 사건이나 인물들의 심리를 모두 알고 사건 전개를 서술하는 시점

* 사전적 의미 이해하기

[01-08] 다음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구제	문책하다	배회하다	산란하다
심회	애걸하다	천추	평정되다

- 01 잘못을 캐묻고 꾸짖다. ()
- 02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
- 03 오래고 긴 세월. 또는 먼 미래 ()
- 04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
- 05 소원을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빌다. ()
- 06 반란이나 소요가 놀리고 평온하게 진정되다. ()
- 07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
- 08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

* 헛갈리는 의미 정확히 알기

[09-16] 다음의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 09 남을 속여 넘기다. (기망하다, 원망하다)
- 10 일이 되어 가는 형편 (정세, 증세)
- 11 편들어서 감싸 주고 보호함. (비등, 비호)
- 12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망연히, 혼연히)
- 13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하다. (기거하다, 항거하다)
- 14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 낸 일의 결과 (공명, 공적)
- 15 이미 짜인 한 동아리나 대열 따위에 끼어 들어간다. (가입하다, 편입하다)
- 16 건물이나 조직체 따위를 처음으로 세우거나 만들다. (창건하다, 창출하다)

* 개념어 이해하기

[17-20] 다음의 의미에 해당하는 개념어를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 17 겸손한 태도가 드러나는 어조 (겸양의 어조, 반성의 어조)
- 18 인물의 외모나 성격, 행동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 (개념화, 희화화)
- 19 서술자가 작품 속에 직접 끼어들어 자신의 목소리나 의견을 표출하는 서술 방법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위치)
- 20 등장인물의 마음속 생각을 1인칭 현재 화법의 형태로 드러내 보여 주는 서술 기법 (내적 갈등, 내적 독백)

*** 문맥에 맞는 어휘 활용하기**

[21-3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문맥에 맞게 쓰시오.

[보기]

강직하다 고초 팔시하다 기별 무고하다
사면하다 시인하다 의탁하다 하릴없다 현격하다

- 21 우주는 강가에 앉아 ()이 친구를 기다렸다.
22 ()한 백성들이 탐관오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23 우리 팀은 패배를 ()하고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24 노사의 입장 차이가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5 할아버지는 남은 생을 종교에 ()하여 보내고자 하신다.
26 서울이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27 고모는 할머니가 편찮다는 ()을/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28 가뭄이 들어 물이 끊기면서 마을 사람들이 ()을/를 겪고 있다.
29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몇몇의 정치범과 양심수를 특별히 ()했다.
30 해방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를 ()하기 시작했다.

***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 31 <보기>의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자점은 쉼터 밖에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촛철이 없는지라.

- ① 가르쳤다가 ② 거느렸다가
③ 맞이하였다가 ④ 세워 놓았다가
⑤ 숨겨 놓았다가

정답

- 01 문책하다 02 산란하다 03 천추 04 심회 05 애걸하다 06 평정되다 07 배회하다 08 구제 09 기망하다 10 정세
11 비호 12 혼연히 13 항거하다 14 공적 15 편입하다 16 창건하다 17 겸양의 어조 18 회화화 19 서술자의 개입
20 내적 독백 21 하릴없 22 무고 23 시인 24 현격 25 의탁 26 강직 27 기별 28 고초 29 사면 30 팔시 31 ㉠

 차 례

해설편 1

A	현대시	2
B	고전 시가	92
C	시 복합, 수필	145

해설편 2

D	현대 소설	305
E	고전 소설	426
F	극 문학	567
G	소설 복합	584



(가) 홍계영, 〈희설〉

① 화자, 중심 대상 ② 상황, 정서, 태도 ③ 표현상 특징 (시 해석)

① 풍설이 잠깐 자고 정제가 고요케늘
→ 눈바람이 잠깐 잠잠해지고 돌이 고요하거늘

② 현창을 널리 열고 병안(病眼)을 높이 드니
② 상황: 화자는 병중에 있음.
→ 집의 창문을 활짝 열고 병든 눈을 높이 드니

③ 만리 건곤의 무한한 청산이
③ 눈 내리기 전 초록빛 산
→ 멀리까지 펼쳐진 세상(하늘과 땅)의 끝없는 푸른 산들이

④ 눈 내리기 전 청산 눈 내린 청산
옛그제 소년으로 백두옹(白頭翁)이 되어세라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④ '산'을 '소년'과 '백두옹'에 비유하는 의인법을 사용함.
→ 옛그제까지 소년이었는데 (자금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었구나.

〔풍설: 눈과 함께, 또는 눈 위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정제: 뜰의 가장자리 병안: 병들어 건강하지 못한 눈
건곤: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백두옹: 머리털이 하얗게 센 늙은 남자

*①~④행 요약: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
(중략)

⑤ ① 중심 대상
설산(雪山) 진면목을 여가와 다 보노라
② 상황: 눈 내린 풍경을 보고 있음.
→ 눈 내린 산의 진면목을 여기에서 다 보노라.

⑥ 여와 조화옹이 변화도 그지없구나 *설의법: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② 태도: 설경을 조물주가 만든 변화라며 감탄함.
→ 아아, 조물주(가 만드는 세상의) 변화가 끝이 없구나.

⑦ 억만 창생을 사치케 하듯말가
③ 설의법을 사용하여 설경의 아름다움을 강조함.
→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치스럽게 한단 말인가?

⑧ 집마다 경실*이오 섬마다 옥계(玉階)로새 ③ 눈 내린 풍경을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③ 대구법을 활용하여 눈 내린 집들의 풍경을 표현함.
→ 집마다 옥으로 만든 집이오 섬마다 옥으로 만든 계단이구나.

⑨ 내 집도 찬란하니 거처는 좋다마는 *대구법: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을 맞추어 배치하는 표현 방법
① 화자
→ 내 집도 찬란하여 머무는 곳은 좋다마는

⑩ 선비에게 과분하니 심중이 불안하다
선비에게 과분할만큼 눈이 내린 세상이 아름다움.
→ 선비에게 분에 넘치니 마음속이 불안하다.

⑪ 만가 천향*의 경요*가 낡아하대

[A] → 온 마을의 거리에 옥구슬(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⑫ 습유*를 아니하니 풍속도 좋을시고
사람들이 거리의 구슬 즉, 눈을 줌지 않아 풍속이 좋다고 하고 있음.
→ 남이 잃어버린 물건(옥구슬)을 줌지 않으니 (이 고을의) 풍속이 좋구나.

⑬ 수레바퀴 흰 띠는 쌍으로 비껴가고
눈이 내린 길 위로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
→ 수레바퀴 (자국인) 흰 띠가 쌍으로 비껴가고

⑭ 말발*의 은잔(銀盞)은 개개히 두렷하니
눈 내린 길 위에 찍힌 말발굽
→ 눈에 찍힌 말발굽은 마치 은잔처럼 날날이 두렷하니

⑮ 공장의 성령인가 천하의 기제로새
[A] ② 태도 - 설경(雪景)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예찬함.
→ 장인의 작품인가 천하의 기이한 솜씨로구나.

〔설산: 눈이 쌓인 산 진면목: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
조화옹: 만물을 창조하는 노인이라는 뜻으로, '조물주'를 이르는 말
창생: 세상의 모든 사람 옥계: 옥같이 고운 섬돌
거처: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일, 또는 그 장소
과분하다: 분수에 넘쳐 있다. 낭자하다: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다.
공장: 수공업에 공사하던 장인 성령: 쇠를 달구어 만든 작품

*⑤~⑮행 요약: 눈 내린 풍경의 아름다움

⑯ 공계 위에 새 자취는 야사 황대의
→ (눈 내린) 빈 계단 위에 (있는) 새의 자취(발자국)는 시골 절의 황폐한 누각에

⑰ 창힐이 만든 글자
창힐서가 완전한 듯 석양 한천의
눈 내린 계단 위 새의 발자국
→ 창힐의 글자가 또렷이 찍혀있는 듯하다. 해질 무렵의 차가운 하늘에

⑱ 날아드는 저 가마귀 눈빛을 더럽일사
② 정서: 검은색의 까마귀가 아름다운 설경의 하얀 빛을 더럽힐까 안타까움.
→ 날아드는 저 가마귀(가) (하얀) 눈의 빛을 더럽히는구나.

⑲ 천지만물 중의 네 홀로 유(類)다르니
세상이 온통 하얀색인데 까마귀만이 검은색임.
→ 천지 만물 중에서 너 홀로 다른 것과 다르니

⑳ 소의 호상*으로 개복(改服)들 하야스라
→ 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려무나.

〔창힐: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인 황제(黃帝) 때의 사관(史官), 새의 발자국을 본떠서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천: 겨울의 차가운 하늘
가마귀: '까마귀'의 옛말 개복: 옷을 갈아입음.

*⑯~⑳행 요약: 깨끗한 세상을 까마귀가 더럽힐까 걱정함.

㉑ 정변 대석은 백호가 준좌하니
눈에 덮인 큰 돌
→ 뜰가의 큰 돌에 흰 호랑이가 주저앉아 있으니

㉒ 이비장* 보듯더면 오호궁을 다랏나다
③ 고사(역사 속 인물)를 인용하여 설경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강조함.
→ 이비장이 보았더라면 오호궁(할)을 당겼으리라.

㉓ 고목의 늙은 가지 개개의 옥룡일새
늙은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
→ 오래된 나무의 늙은 가지 날날이 옥룡이로구나.

㉔ 운우(雲雨)를 언제 얻어 벽공의 오르려니
→ (옥룡이) 구름과 비를 언제 얻어 푸른 하늘에 오르려니

㉕ 네 등을 잠깐 빌어 월중계*를 꺾고자나
② 정서: 옥룡의 등에 올라타 초월적 세계인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함.
→ 네 등을 잠깐 빌려서 달나라의 계수나무를 꺾고 싶구나.

〔준좌하다: 힘없이 주저앉다. 오호궁: 예전에, 중국에서 이름난 활의 하나
고목: 주로 키가 큰 나무로, 여러 해 자라 더 크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
운우: 구름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벽공: 푸른 하늘

*㉑~㉕행 요약: 하늘에 올라 달나라의 계수나무를 꺾고 싶음.

㉖ 유흥이 전심하니* 질병을 다 잊을다
② 정서: 설경에서 느끼는 흥취를 통해 질병의 고통을 잊음.
→ 그윽한 흥취가 더욱 깊어가니 앓던 병을 다 잊겠다.

㉗ 학창의(鶴氅衣)를 잠깐 입고 청려장을 높이 짚어
→ 학창의를 잠깐 입고 명아쫓대로 만든 치팡이를 높이 짚어

㉘ 바닥 없슨 신을 신고 설리(雪裏)의 배회하니
→ 바닥 없는 신발을 신고 눈 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니

㉙ 맹영이 잊도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랴 할 거이고
② 태도: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음.
→ 맹영이 있었더라면 나도 신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유흥: 그윽한 흥취
학창의: 소매가 넓고 뒤 술기가 갈라진 흰옷의 가를 검은 천으로 넓게 댄 옷
청려장: 명아쫓대로 만든 치팡이
설리: 눈이 쌓인 속 맹영: 중국 당나라의 시인 맹호연

*㉖~㉙행 요약: 몸이 아픈 것을 잊고 초월적 세계를 상상함.

* 경실: 옥으로 만든 집 * 만가 천향: 온 거리
* 경요: 옥구슬 * 습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음.
* 말발: 말발굽 * 소의 호상: 희고 깨끗한 옷
* 이비장: 한나라 때 흉노를 토벌한 장군
* 월중계: 달나라의 계수나무 * 전심하니: 더욱 깊으니

★ (가) 독해 공식

- ① 화자: '나', 중심 대상: 눈 내린 풍경
 ② 상황: 병중에 있는 화자가 눈 내린 풍경을 보고 있음.
 정서: 설경의 아름다움에 감탄함. 검은색의 까마귀가 아름다운 설경의 하얀 빛을 더럽힐까 안타까워 함. 설경에서 느끼는 흥취를 통해 질병의 고통을 잊음.
 태도: 설경(雪景)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함.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음.
 ③ 표현상 특징
 • 의인법을 통해 산을 '소년'과 '백두옹'으로 나타냄.
 • 설의법을 통해 설경의 아름다움을 강조함.
 •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시적 의미를 강조함.
 • 눈 내린 풍경을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
 • 역사 속 인물을 활용하여 설경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강조함.

- 갈래: 가사 ■ 창작 시기: 조선 후기
 ■ 글쓴이: 홍계영(1687~1705). 어려서부터 시문(詩文)의 천재로 촉망받았으나 19세에 요절하였다. 이 작품은 그의 나이 18세 때 병 요양을 위해 처가로 떠나기 전 눈 내린 풍경을 보고 지은 것이다.
 ■ 제목의 의미: '기쁨 희(喜)' + '눈 설(雪)'. '눈 내리는 기쁨'을 노래함.
 ■ 주제: 눈 내린 풍경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 이것이 핵심! : 자연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자연의 모습	마을과 거리에 눈이 내린 풍경
화자의 처지	병중에 있음.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눈 내린 풍경을 보며 '옥룡'을 떠올리고 초월적 세계를 꿈꾸며 '병중'이라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함.

(나) 강복중, 〈수월정청흥가〉

① 화자, 중심 대상 ② 상황, 정서, 태도 ③ 표현상 특징

- ① 울령천(栗嶺川) 긴 감소*에 뉘대 들고 흘건다가*
 → 울령천(의) 깊은 연못에 뉘싯대를 들고 흠여 건다가
 ② 아침밥 종이 먹고 긴 조오름 내었으니
 [J] ④ 상황 - 자연 속에서 여유자적함.
 → 아침밥 잘 먹고 긴 졸음을 내었으니
 ③ 세상의 번우한* 벗이 이 뜻 알까 하노라 <제2수>
 ② 정서: 자연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낌.
 → 세상에 사는 걱정 많은 벗이 이 뜻(을) 알까 하노라.
 [뉘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의 하나.=뉘싯대 종이: 별 탈 없이 잘.

*〈제2수〉 요약: 자연에서의 여유로운 삶과 이에 대한 자부심

- ① 울령천 백구(白鷗)들이 나더러 이른 말이
 ① 화자
 → 울령천의 갈매기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④ 인간 시비(是非)를 모르고 늙으소서
 ② 태도: 속세의 시비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세상의 옳고 그름을 모르고 늙으소서
 ③ 우리는 한 말도 아니되 겹다 세다 하노라 <제14수>
 ③ 백구를 의인화하여 속세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냄.
 → 우리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겹다 희다고 하는구나.

[백구: 갈매기와 새 이르다: 무엇이라고 말한다. 시비: 옳음과 그름.

*〈제14수〉 요약: 자연 속 삶과 달리 시비를 다루는 속세

- ① 대산 상상봉에 내 혼자 올라와서
 → 대산의 맨 뒷 봉우리에 나 혼자 올라와서
 ② 에에쳐* 실컷 울고 생각느니 입이로다 [J] ④ 상황 - 산에 올라 임을 떠올림.
 ① 화자
 → 소리쳐 실컷 울고 생각해 보니 입이로다.
 ③ 설의법을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충정을 강조하여 표현함.
 ③ 평생에 위군부애정*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 <제20수>
 ② 정서: 강호에 살아가면서도 속세의 임금을 그리워함.
 → 평생에 임금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마음을 한 순간이라도 잊을까?

*〈제20수〉 요약: 자연 속에서도 임금을 그리워함.

- * 감소: 물 웅덩이 * 흘건다가: 흠여 건다가
 * 번우한: 번거롭고 걱정이 많은 * 에에쳐: 소리쳐
 * 위군부애정: 임금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감정

★ (나) 독해 공식

- ① 화자: '나', 중심 대상: 임(임금)
 ② 상황: 자연 속에서 여유자적함. 산에 올라 임을 떠올림.
 정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여유로운 삶에 자부심을 느낌. 강호에 살아가면서도 속세의 임금을 그리워함. 태도: 속세의 시비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③ 표현상 특징
 • 백구를 의인화하여 속세의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음.
 • 설의법을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충정을 강조하여 표현함.

- 갈래: 연시조 ■ 창작 시기: 조선 후기
 ■ 글쓴이: 강복중(1563~1639), 조선 인조 때의 문신. 인조반정 때는 〈계해반정가〉를 지어 거사를 찬양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위군위친통곡가〉를 지어 피해한 시대상과 슬픔을 노래하였다.
 ■ 제목의 의미: '수월정(水月亭)' + '청흥(淸興)' + '가(歌)'. '수월정'의 '맑은 흥과 운치'를 노래함. 대둔산의 물줄기인 청계천(淸溪川)가에 자리잡은 수월정(水月亭)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함.
 ■ 주제: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
 ■ 이것이 핵심! : 자연 속에서의 화자의 삶과 태도

〈제2수〉	낙시를 즐기며 여유롭게 살아감.
〈제14수〉	속세의 시비에 관심을 두지 않음.
〈제20수〉	산에 올라 임금을 그리워함.

B 40 정답 ⑤ *작품 비교하기 [정답률 6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해 정답?

⑤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가) 눈 내린 풍경에 대한 감탄, (나)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근거: (가) ⑦, ㉠, (나) 〈제20수〉 ③

(가)는 '억만 창생을 사치케 하듯말가'에서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눈 내린 풍경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맹영이 잇도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에서도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신선과 같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는 〈제20수〉 '평생에 위군부 애정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에서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임금을 떠올리는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내면: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속마음

▶오해 오답?

① 후렴구를 활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가) ×, (나) × 리듬감

'후렴구'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나타냄으로써 내용을 강조하고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와 (나)에는 모두 후렴구가 나타나 있지 않다.

[후렴구: 노래 곡조 끝에 붙여 같은 가락으로 되풀이하여 부르는 짧은 가사의 구절

② 연쇄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가) ×, (나) × 대상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연쇄'란 특정 대상이나 내용을 연이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가)와 (나)에는 모두 연쇄의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연쇄: 사물이나 현상이 사슬처럼 서로 이어져 통일체를 이룸

③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가) ×, (나) ×

'직유'는 '처럼'이나 '듯이'와 같은 연결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가)와 (나)에는 모두 직유의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상승과 하강 이미지 반복~~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가) ×, (나) ×

주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근거: (가) 24

(가)의 '운우(雲雨)를 언제 얻어 벽공의 오르려니'에서 푸른 하늘에 오르려는 화자의 바람과 상승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승과 하강 이미지를 반복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도 상승과 하강 이미지를 반복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B 41 정답 ④ *시어의 및 구절 의미 파악하기 [정답률 67%]

가마괴와 백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마괴**: 검은색의 '까마귀'로, 하얀 눈빛과 대비되어, 화자는 까마귀에게 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구**: 울령천에 사는 갈매기들로, '나'에게 인간의 시비(是非)를 모른 채 늙어가고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가)와 (나)의 화자가 각각 '까마귀'와 '갈매기'와 맺고 있는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해 정답?

④ '가마괴'는 화자가 권고의 말을 건네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권고의 말을 건넨,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상이다.

화자에게 인간의 시비를 모른 채 늙어가는 당부의 말을 전함.

*근거: (가) 18~20, (나) (제14수) ①, ②

(가)의 화자는 '날아드는 저 가마괴 눈빛을 더러일사', '소의 호상으로 개복들 하야스라'라고 한다. 즉, 검은색의 까마귀가 하얀 눈빛을 더럽힐까 안타까워 하며 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권고의 말을 건넨 것이다. 따라서 (가)에서 까마귀는 화자가 권고의 말을 건네는 대상이다.

(나)에서 '울령천 백구들'은 화자에게 '인간 시비(是非)를 모르고 늙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울령천 갈매기들은 화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상이다.

권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당부: 말로 단단히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오해 오답?

①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다.

'가마괴', '백구'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갖고 바라보지 않음.

*근거: (가) 18~20, (나) (제14수) ①, ②

(가)에서 화자는 '가마괴'가 하얀 눈빛을 더럽힐까 걱정하고 있을 뿐 '가마괴'에게 경외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 '백구'는 화자에게 '인간 시비를 모르고 늙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을 뿐, 화자가 '백구'에게 경외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 경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②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가마괴'와 '백구' 모두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음.

*근거: (가) 18~20, (나) (제14수) ①, ②

(가)에서 화자는 날아드는 '가마괴'가 눈빛을 더럽힐까 안타까워할 뿐, 가마괴를 계기로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나)에서 '백구'는 화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을 뿐, 화자가 백구를 계기로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지는 않다.

◁ 회고하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다.

③ '가마괴'는 화자가 위로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공감하는 대상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상

*근거: (가) 18~20, (나) (제14수) ①, ②

(가)에서 화자는 '가마괴'가 눈빛을 더럽힐까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가마괴'를 위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에서 '백구'는 화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을 뿐, 화자에게 공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⑤ '가마괴'는 화자가 속한 심미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가 속한 ~~말속적~~ 세계를 폄하하는 대상이다.

까마귀의 검은색은 하얀 눈빛 세상을 더럽힐 수 있음.

세속의 세계를 폄하하고 있음.

*근거: (가) 18~20, (나) (제14수) ①, ②

(가)에서 화자는 '날아드는 저 가마괴 눈빛을 더러일사'라며 날아드는 까마귀가 하얀 눈빛의 세상을 더럽힐까 걱정하고 있다. 즉 화자가 볼 때 '가마괴'는 화자가 속한 심미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 '백구들'은 화자에게 '인간 시비(是非)를 모르고 늙으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백구'가 시비로 가득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구'는 세속의 세계를 폄하하고 있다.

B 42~43 다음을 참고하여 B42번과 B4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①가사와 ^(가)시조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가)에서는 ^{설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병의 고통을 잊음.}병중의 화자가 ^③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화자의 처지}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④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⑤이러한

^{자연 속에서도 사대부로서 세상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자연 속에서도 사대부로서 세상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작품 속에 자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병중: 병을 앓고 있는 동안 초극하다: 어려움 따위를 넘어 극복해 내다.
강호: 예전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생활하던 시골이나 자연 번민: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

B 42 정답 ④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정답률 40%]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31%	4%	32%	40%	19%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선생님’의 안내: (가)와 (나)는 자연을 감상하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가): 병중의 화자가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 (나):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의 자연을 감상하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가)와 (나)의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에 따라 각각 자연을 감상하면서 드러내는 감정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해 정답?

④ 학생 4: (가)의 ‘옥룡’을 떠올리며 ‘질병’을 잊은 것 같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보고 아픔을 떨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잊는, (나)의 ‘울령천’에서 ‘세상의 번무한 빗’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도 ~~괴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강호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냄.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의 즐거움을 느낌.

*근거: (가) 23~25, (나) (제2수), ‘선생님’의 안내 ②, ③문장

‘선생님’의 안내에 따르면, (가)에서는 병중의 화자가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가)에서 화자는 ‘고목의 늙은 가지’를 ‘옥룡’에 비유하고 ‘네 등을 잠깐 빌어’ ‘벽공’에 오르고 싶다면 ‘질병을 다 잊’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자연은 화자가 질병의 고통을 잊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세상의 번우한 벗이 이 뜻 알까 하노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강호에서 누리는 여유로운 삶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것일 뿐, 강호에서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해 오답 ?

- ① 학생 1: (가)의 ‘현창’을 열고 ‘백두옹’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거: (가) ②~④, ‘선생님’의 안내 ②문장

‘선생님’의 안내에 따르면 (가)의 화자를 ‘병중에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현창을 널리 열고 병안을 높이 드니 / 만리 건곤의 무한한 청산이 / 엇그제 소년으로 백두옹이 되어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해버린 풍경을 관찰하고 ‘소년’이 ‘백두옹’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즉 이때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이다.

- ② 학생 2: (나)의 ‘울령천’에서 지내며 ‘아침밥’을 먹은 후 졸음이 나온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거: (나) (제2수) ②, ‘선생님’의 안내 ③문장

‘선생님’의 안내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강호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아침밥 종이 먹고 긴 조오름 내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강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자연은 화자에게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③ 학생 3: (가)의 ‘늙은 가지’에 쌓인 눈을 보고 ‘유흥’이 깊어진다 는 상황을 통해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는, (나)의 ‘긴 감소에 ‘낙대’를 들고 흠여 걷는 상황을 통해 강호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모두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거: (가) ②③~④, (나) (제2수) ①, ‘선생님’의 안내 ②, ③문장

‘선생님’의 안내에서 (가)에서는 병중의 화자가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한다고 했고,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라고 했다.

(가)에서 화자는 ‘고목의 늙은 가지 개개의 옥룡일세’, ‘유흥이 전심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늙은 가지마다 날날이 쌓이는 눈을 보며 그윽한 흥취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즉 자연은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이다. (나)에서 화자는 ‘울령천 긴 감소에 낙대 들고 흠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울령천의 깊은 연못에서 낙시를 하며 강호를 즐기는 모습으로 자연은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이다.

- ⑤ 학생 5: (가)의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눈을 보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나)의 ‘대산 상상봉’에서 ‘위군부애정’을 생각하는 상황을 통해 산봉우리에서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거: (가) ②③~④, (나) (제2수), ‘선생님’의 안내 ②, ③

‘선생님’의 안내에서 (가)에서는 병중의 화자가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한다고 했고,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한다고 했다.

(가)에서 화자는 ‘바닥 없는 산을 신고 설리의 배회하니 / 맹영이 인도덜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신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즉 자연은 화자에게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이다. (나)에서 화자는 ‘위군부애정’이 일각인을 잊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듯 화자가 강호의 산봉우리에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며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때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이다.

B 43 정답 ②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 [정답률 78%]

- ①을 고려하여 [A]에 대한 영상시를 제작할 때 학생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눈 내리는 풍경’으로 (가)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입니다.
- [A]: 눈이 내린 세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 [A]에 묘사된 눈 내린 세상의 모습을 잘못 파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해 정답 ?

- ② 눈이 온 거리에서 풍속에 따라 구슬을 줌은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근거: (가) ⑪, ⑫

[A]에서 ‘만가 천향의 경요가 낭자하대 / 습유를 아니하니 풍속도 졸을시고’는 눈 내린 거리의 풍경이 마치 옥구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옥구슬을 사람들이 줌이 않으니 풍속이 좋다는 의미이다. 즉, [A]에서 ‘구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시를 제작할 때 화자가 구슬을 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해 오답 ?

- ①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근거: (가) ③, ④

[A]에서 ‘집마다 경실이오 섬마다 옥계로새 / 내 집도 찬란하니’는 눈이 내려 다른 집이나 섬들이 모두 옥과 같은 것처럼 자신의 집도 빛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상시를 제작할 때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마을의 집들과 거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근거: (가) ③, ⑪

[A]에서 ‘집마다 경실이오’, ‘만가 천향의 경요가 낭자하대’는 집마다 옥으로 만든 것처럼 눈이 쌓여 있고, 온 마을의 거리에도 옥구슬 같은 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상시를 제작할 때 마을의 집들과 거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 ④ 눈이 쌓인 길 위로 말발굽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근거: (가) ⑫

[A]에서 ‘말발의 은진은 개개히 뚜렷하니’는 눈에 찍힌 말발굽이 마치 은잔처럼 날날이 뚜렷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영상시를 제작할 때 눈이 쌓인 길 위로 말발굽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 ⑤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근거: (가) ⑬

[A]에서 ‘수레바퀴 흰 띠는 쌍을 비껴가고’는 수레바퀴가 눈을 밟고 지나간 자국이 쌍으로 나란히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화자가 눈이 내린 거리에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관찰함으로써 알아낸 내용이다. 따라서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2022 실시 10월 학평 27~30]

① 중심인물, 배경 ② 중심 사건, 갈등 ③ 서술상 특징

① 중심인물

[앞부분의 줄거리] 원수는 서번과 서달을 물리치고 황성으로 돌아가던 중 단원에서

= 장풍운

모친과 경패 남자를 상봉한다.

① 중심인물 ① 중심인물

① 서로 그리워하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모친을 모시고 중당에 좌정하여 서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때 부인 양씨가 장도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② “내가 부친과 너를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어떤 두 여인이 절에 의탁하고자 하였는데, 그 모습과 사정이 나와 비슷하였기에 머리를 깎고 나와 스승과 제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후원에서 애절하고 원망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나기에 위로하러 갔더니, 옷을 만지면서 슬퍼하고 있더구나.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경패 남자가 갖고 있는 남군의 신표라, 원수의 옷인, 남군의 신표라 하기에 더욱 보자고 하여 받아 보았더니 나의 숨씨였고 너의 옷이었다. 마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웠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정으로 믿을 만한 표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단다. 그러다 네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관상을 보이고 나서 생년월일시를 적어 비단 주머니에 넣어 옷깃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이 기억이 났단다. 이것을 믿을 만한 표식으로 여겨 사오 년을 서로 아껴 주고 위로해 주며 지냈느니라.”

부인 양 씨와 경패 남자가 사제지간으로 지낸 기간 [J: ② 중심 사건 - 풍운이 모친 양 씨와 풍운의 처 경패 남자가 만남.]

원수: 장성 계급의 하나. 대장의 위로 가장 높은 계급이다.

상봉하다: 서로 만나다. 중당: 당상(堂上)의 남북의 중간

좌정하다: 자리 잡아 앉다. 장도: 긴 칼

신표: 뒷날에 보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물건

*[T] 요약: 부인 양 씨가 남자를 만나게 된 사연

② 이것을 듣고 원수가 모친께 아뢰었다. [J: ② 중심 사건 - 풍운이 경패 남자와 결혼하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입신양명함.] “소자도 그때 도적이 데리고 가다가 중도에서 버렸기에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남자의 부친이 데려다가 사랑하고 아껴 주시고 남자와 백 년의 가연을 정해 주었습니다. 또 통판이 계시하신 대로 호 씨의 구박을 견디다가 결국 남자와 이별하고 동서로 결식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천행으로 서주의 왕 상서 덕분에 의탁하여 왕 상서의 사환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서의 명으로 황성에 갔다가 천행으로 과거를 보아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③ 이어 서주에 내려가 왕 상서의 여식과 혼인한 이야기와 황성에 올라가 원천의 딸을 후궁으로 삼은 이야기를 부인과 남자에게 말씀드리니 ④ 부인과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즐거워하였다.

④ 원수가 다시 아뢰었다. 원수의 행적을 모친과 남자가 긍정적으로 여김.

⑤ “천자께서 명하시어 소자를 불러 이르시기를, ‘서번과 서달이 삼십육도 군장과 도모하여 대국을 침범하였노라. 너를 대사마 대원수로 삼으니, 이 사인검을 가지고 정병 팔십 만을 조발하여 번국을 소멸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에 소자가 한 번 전장에 나아가 서번과 서달, 삼십육도 군장을 모두 소멸하여 천은을

② 중심 사건 - 풍운이 대원수가 되어 번국을 소멸하는 큰 공적을 세움.

만분의 일이나마 갚고 돌아오다 서천관에 이르러 유숙하고 있을 때, 금산사 화주승이라 하는 노승이 꿈에 나타나 여남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남에 이르렀는데 또 그 도사가 꿈에 나타나 단원사를 찾아가면 절로 부모와 남자를 만날 것이라 하기에 이리로 온 것입니다.”

⑥ 이렇게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리니, ⑥ 부인과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도사의 신기함에 감복하였다.

원수의 모친과 남자가 황제와 도사에게 고마워함.

결식하다: 음식 따위를 빌어먹다. 또는 먹을 것을 빌다.

천행: 하늘이 준 큰 행운. 여식: 여자로 태어난 자식. = 딸

사환: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천자: 천제(天帝)의 아들, 즉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군주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이르는 말

도모하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정병: 우수하고 강한 군사. 조발하다: 군사로 쓸 사람을 강제로 뽑아 모으다.

전장: 싸움을 치르는 장소. 천은: 임금의 은덕. 유숙하다: 남의 집에서 묵다.

노승: 나이가 많은 승려. 감복하다: 감동하여 충심으로 탄복하다.

*[2] 요약: 원수가 남자와 혼인하고 과거에 급제한 후 단원사에 오게 된 사연

(중략)

③ 원수는 행군의 여정이 피곤하여 잠깐 졸았는데, 전날 밤중 꿈속에 나타났던 도사가 또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④ “원수는 부친을 눈앞에 두고 어찌 잠만 깊이 자십니까?”

⑤ 그러고는 문득 사람이 보이지 않거늘, 깨어 보니 남가일몽이었다.

⑥ 마음이 뒤숭숭하였으나 도사의 영감과 신기함은 탄복할 만하였기에, ‘도사의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구나.’ 하면서 혹시라도 부친을 찾을까 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여 각 도와 각 읍의 자사와 수령을 모두 청하였다.

⑦ 자리를 정하고 즐기며 차례로 술잔을 권했는데, 부남은 남방의 대관이었기에 부남 태수가 오른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잔이 두세 번 돌아간 뒤에 부남 태수가 눈을 들어 원수의 거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선풍도골이어서 천상의 선관이 하강한 듯하였다. 그런데 조금도 즐거워하는 빛이 없었고 차고 있던 ⑧ 장도를 만지면서 슬퍼하는 듯하였다. ⑧ 이를 보고 ④ 부남 태수가 문득 풍운이 생각나 흐느끼며 생각하기를 ‘풍운도 살아 있다면 내가 주었던 장도를 만지면서 저렇듯이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며 자세히 보니 원수의 장도가 풍운에게 채워 주었던 장도와 똑같았다. ⑨ 이에 마음속으로 너무 놀라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공경을 표하고 원수에게 물었다.

⑩ “원수가 차신 장도는 반드시 보검일 듯합니다. 황송하오나 한번 구경하고자 하옵니다.”

⑪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오히려 반기면서 장도를 끌려주었다.

⑫ 부남 태수가 자세히 보더니, ‘이것은 정녕 자식 풍운의 칼이로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원수가 이에 더욱 이상하게 여겨 부남 태수는 원수가 찬 장도가 자신이 ‘풍운’에게 채웠던 정도임을 확인함.

⑬ “태수는 이 칼을 보시고 어찌 슬퍼하며 흐느끼십니까?”

⑭ 태수가 아뢰어 말하였다. 태수가 장도에 얹힌 사연을 이야기하는 계기가 됨.

16 “항공하오나 하관이 앞뒤의 내력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도를 얻게 된 내력과 얻은 후의 내력 양 참군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인이신 양 참군의 부친 풍운의 모친 양 씨 양 상서께서 대국으로 사신을 갔다가 연왕이 정표로 이 장도를 주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양 상서가 이 장도를 가지고 오셔서 대대로 전하는 물건으로 삼았습니다. 양 상서가 이 장도를 양 참군에게 전하였는데, 양 참군은 후사가 없고 따로 전할 데도 없어서 하관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도 이름은 연평검이니 하관이 매우 아끼던 것입니다. 제가 늦게야 한 아들을 낳았는데 용모가 비범하였기에 행여 단명할까 염려가 되어 절강의 도사에게 가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 살 이전에 부모와 이별할 것이라고 하기에 혹 이별하더라도 서로 잊지 않기 위해 장도를 자식에게 채우고 생년월일시를 써 비단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뒤에 난리가 났는데, 하관은 황명을 받아 가달을 치러 경사로 올라갔고, 처 양 씨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하관이 가달을 평정하고 돌아오니 천자께서 하관에게 부남 태수를 제수하셨습니다. 이에 부남으로 내려올 때 고향에 들렀더니 집은 비었고 처는 간 데가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사방으로 찾았으나 종적을 알 수 없어 홀로 부남에 도입하였습니다. 오늘날 원수가 차신 장도를 보니, 문득 자식이 생각나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 칼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17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18 바로 그 주머니에서 19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를 내어 태수에게 드리고 땅에 얹드려 통곡하며 말하였다. 20 “소자가 불초자 풍운이로소이다.” 부남 태수에게 자신이 아들 ‘풍운’임을 밝힘. 그러고는 지극히 애통해하니, 태수가 정신을 차리고 그 유서를 받아 보니 과연 자신의 친필이 분명하였다.

배설하다: 연회나 의식(儀式)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다.
수령: 고려·조선 시대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태수: 예전에, 주(州)·부(府)·군(郡)·현(縣)의 행정 책임을 맡았던 으뜸 벼슬
거동: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것이나 태도
선봉도골: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란 뜻으로, 남달리 뛰어난 고아(高雅)한 풍채를 이르는 말 선관: 선경(仙境)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신선
하강하다: 신선이 속계로 내려오거나 웃어른이 아랫자리로 내려오다.
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심. 보검: 보배로운 칼
하관: 아래 직위에 있는 벼슬아치가 상관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제수하다: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다.
도입하다: 지방의 관리가 근무지에 도착하다.
불초자: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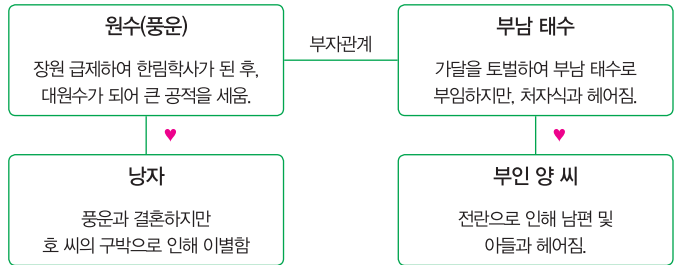
* ③ 요약: 원수가 도사의 지시에 따라 잔치를 벌여 아버지(부남 태수)와 재회함.

독해 공식

- 중심인물: 원수(풍운), 부인 양씨, 남자, 부남 태수
시간적 배경: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공간적 배경: 단원사
- 중심 사건: 풍운이 모친 양 씨와 풍운의 처 경매 남자가 만남. 풍운이 경매 남자와 결혼하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입신양명함. 풍운이 대원수가 되어 번국을 소멸하는 큰 공적을 세움. 풍운이 꿈속 노승의 도움을 받아 모친과 남자와 재회함. 풍운이 부친과 재회함.
갈등: 전란으로 인해 ‘풍운’이 부모와 헤어짐.
- 서술상 특징
 - 서술자: 3인칭 서술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나타냄.

- 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 특정 소재가 인물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침.
- 꿈속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사건이 전개됨.

- 갈래: 고전 소설
- 주제: 장풍운의 영웅적 일대기
- 이것이 핵심: ‘풍운’ 가족의 이별과 재회



■ 전체 줄거리: 중국 송나라 때, 장풍운은 이부시랑 장희와 부인 양 씨의 아들로 태어난다. 장희는 절강의 도사를 찾아가다가 풍운의 앞날을 알고 생일을 기록해 풍운의 옷깃 속에 감추어 둔다.

풍운이 어렸을 때 변방에 가달이 침략해 오자 풍운의 부친은 황명(皇命)을 받들어 출전하고, 양 부인은 때마침 나타난 도적을 피하려고 금계산에 이르지만 도적에게 풍운을 빼앗기고 만다. 집으로 돌아온 양 부인은 단원사에 들어가 여승이 되고, 풍운의 부친은 승전하여 부남 태수에 임명되지만 가족을 만날 수 없어 슬퍼한다.

한편 풍운은 도적들이 패하여 도망갈 때 버려진 후 이운경에게 발견된다. 이운경은 풍운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데려가 양육하고, 후처인 호 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처 소생인 경매와 혼인시킨다. 하지만 이운경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죽자 호 씨의 학대가 더욱 심해진다. 이에 풍운은 가출하여 경매와 이별하게 되고, 경매도 호 씨의 개가 권유에 집을 나와 떠돌다가 단원사에 들어가 풍운의 모친과 만난다.

풍운은 떠돌다가 왕 상서를 만나고 왕 상서는 풍운을 사환으로 삼는다. 풍운은 왕 상서의 심부름으로 경성에 갔다가 원철의 집에 기거하던 중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어 왕 상서의 딸, 그리고 원철의 딸과 혼인한다.

이때 서번과 서달이 침략해 오자 풍운은 대원수로 출전해 계교로 적을 물리치고, 회군하는 도중 꿈에 나타난 노승의 계시로 단원사에서 모친과 경매를 상봉한다. 그리고 이어 수령 잔치 때 부남 태수인 부친과 신표를 확인하고 상봉함으로써 헤어졌던 가족이 모두 만나게 된다.

원수는 황제의 주선으로 명현왕의 딸 유씨와 혼인하는데 다시 토번이 침입하여 전쟁에 나간다. 이때 질투가 심한 유씨의 계교로 부인 경매가 죽을 위험에 빠지지만, 금산사 부처의 계시와 왕 부인의 편지 덕분에 풍운이 급히 돌아와 모든 진상을 밝히고 유씨는 벌을 받아 죽는다. 이후 풍운은 서량왕이 되고 부인들과 자식들 모두 부귀영화를 누린다.

(: 지문 수록 부분)

E 09 정답 ①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정답률 7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오해 정답 ?

① 부남 태수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의 종적을 알지 못한 채로 부남에 부임했다.

* 근거: ③-⑩

부남 태수는 원수에게 ‘처 양 씨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이에 부남으로 내려올 때 고향에 들렀더니 집은 비었고 처는 간 데가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사방으로 찾았으나 종적을 알 수 없어 홀로 부남에 도입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즉 부남으로 부임하기 전에 고향에 들렀으나 집은 비었고 아들을 데리고 있던 부인의 종적도 찾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부남 태수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의 종적을 알지 못한 채로 부남에 부임했다고 할 수 있다.

[부임하다: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가다.]

오해 오답 ?

- ② 양 씨는 남자가 자신의 머느리임을 알고 나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다. *근거: ㉠-㉢

부인 양 씨는 원수에게 '어떤 두 여인이 절에 의탁하고자 하였는데, 그 모습과 사정이 나와 비슷하였기에 머리를 깎고 나와 스승과 제자가 되었느니라.', '남군의 신표라 하기에 더욱 보자고 하여 받아 보았더니 나의 솜씨였고 너의 옷이었다.', '이것을 믿을 만한 표식으로 여겨 사오 년을 서로 아껴 주고 위로해 주며 지냈느니라.'라고 했다. 즉 부인은 이미 남자와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후 남자가 지닌 신표를 통해 자신의 머느리임을 알아본 것이다.

- ③ 원수가 도적에게 잡혀 있을 때 남자의 부친이 원수를 도적 으로부터 구해 주었다.

*근거: ㉡-㉣

원수는 모친에게 '소자도 그때 도적이 데리고 가다가 중도에서 버렸기에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남자의 부친이 데려다가 사랑하고 아껴 주시고 남자와 백 년의 가연을 정해 주었습니다.'라고 했다.

즉 원수가 도적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도적이 중도에 원수를 버렸기 때문이지, 남자의 부친이 원수를 구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남자의 부친은 단지 버려진 원수를 데려다 보살펴 주었을 뿐이다.

- ④ 원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주의 왕 상서 덕에 자신을 의탁했다.

*근거: ㉡-㉣

원수는 모친에게 '결국 남자와 이별하고 동서로 걸식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천행으로 서주의 왕 상서 덕에 의탁하여 왕 상서의 사환으로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서의 명으로 황성에 갔다가 천행으로 과거를 보아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지냈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즉 원수가 서주의 왕 상서 덕에 자신을 의탁한 것은 걸식하며 지내다가 천행을 얻었기 때문이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다.

- ⑤ 부남 태수는 원수의 기질과 풍채를 보고 원수가 자신과 닮은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근거: ㉢-㉥

'잔이 두세 번 돌아간 뒤에 부남 태수가 눈을 들어 원수의 거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선풍도골이어서 천상의 선관이 하강한 듯하였다.'라고 했다.

즉 부남 태수는 원수의 기질과 풍채를 보고 천상계의 신선이 지상에 내려온 것 같다고 생각하며 감탄할 뿐, 자신과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④ *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 [정답률 53%]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4%	10%	12%	53%	19%

<보기>를 참고하여 [A]~[D]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장풍운전>의 전개 과정과 대화의 서사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A]: 부인 양 씨가 자신의 머느리였음을 만나게 된 사연입니다.
- [B]: 원수가 조력자들을 만나 남자와 결혼하고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사연입니다.
- [C]: 원수가 번국을 소멸하고, 가족과 재화하게 된 사연입니다.
- [D]: 부남 태수가 장도를 얻게 되고 천관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게 된 사연입니다.

※ <보기>에 제시된, 작품에서 대화가 하는 서사적 기능을 바탕으로, 중심 사건을 잘못 이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① <장풍운전>은 가족이 헤어졌다가, 주인공이 입신양명하고 큰 공적을 세우는 데에 힘입어 가족이 다시 만남으로써 가문의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서사가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독자는 이를 통해 인물들이 헤어져 각자 겪은 일들, 인물들이 새롭게 맺은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인물들이 겪은 일들을 서로 연계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오해 정답 ?

- ④ [B], [D]를 통해 원수와 부친의 이별이 두 사람에게 시련을 초래했지만 두 사람에게 조력자들을 만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 있어.

*근거: ㉡-㉣, ㉢-㉥, <보기> ㉡문장

[B]에서 원수는 '마침 남자의 부친이 데려다가 사랑하고 아껴 주시고, '천행으로 서주의 왕 상서 덕에 의탁하여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지냈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독자는 이를 통해 인물들이 헤어져 각자 겪은 일들, 인물들이 새롭게 맺은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따라서 독자는 [B]를 통해 원수와 부친의 이별이 원수에게 시련을 초래했지만, '남자의 부친', '왕 상서' 등의 조력자들을 만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D]에서 부남 태수, 즉 원수의 부친은 '하관이 가달을 평정하고 돌아오니 고향에 들렀더니 집은 비었고 처는 간 데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따라서 독자는 [D]를 통해 원수와 부친의 이별이 부친에게 시련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수의 부친은 조력자들을 만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가달을 평정하는 공을 스스로 세움으로써 출세한 것이다. 따라서 원수의 부친이 조력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해 오답 ?

- ① [A]에서 모친이 자신이 지은 원수의 옷을 남군의 신표로 간직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B]를 통해 원수가 그 여인과 연을 맺은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어.

*근거: ㉡-㉣, ㉢-㉥, <보기> ㉡문장

[A]에서 원수의 모친은 '옷을 만지면서 슬퍼하고 있더구나. ~ 나의 솜씨였고 너의 옷이었다.'라고 했다. 그리고 [B]에서 원수는 '소자도 그때 도적이 데리고 가다가 중도에서 버렸기에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 남자와 백 년의 가연을 정해 주었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보기>에서 '독자는 인물들이 겪은 일들을 서로 연계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즉, 독자는 [A]를 통해 모친이 자신이 지은 원수의 옷을 남군의 신표로 간직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음을 알 수 있는데, [B]를 통해 원수가 그 남자, 즉 모친이 만난 남자와 백 년의 가약을 맺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원수의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원수의 관상을 보였다고 했는데, [D]를 통해 부친이 원수의 관상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있어.

*근거: ㉠-㉣, ㉢-㉥, <보기> ㉢문장

[A]에서 원수의 모친은 '네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관상을 보이고 나서'라고 했다. 그리고 [D]에서 부남 태수, 즉 원수의 부친은 단명할까 염려가 되어 절강의 도사에게 관상을 보였습니.'라고 했다. 또한 <보기>에서 '독자는 인물들이 겪은 일들을 서로 연계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즉, 독자는 [A]를 통해 원수의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원수의 관상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D]를 통해 부친이 원수의 관상을 보인 이유가 원수의 단명을 염려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B]에서 원수가 한림학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C]를 통해 한림학사에서 대사마 대원수가 되어 **가문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공적을 세웠음을 알 수 있어.**

*근거: ②-②, ⑤, <보기> ①문장
[B]에서 원수는 '과거를 보아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지냈던 것입니다.'라고 했고, 또 [C]에서 '천자'로부터 '대사마 대원수'로 임명되어 '서번과 서달, 삼십육도 군장을 모두 소멸'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보기>에서 '주인공이 입신양명하고 큰 공적을 세우는 데에 힘입어 가족이 다시 만남으로써 가문의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했다.

즉, 독자는 [B]와 [C]를 통해 원수가 한림학사에서 대사마 대원수가 되어 번국을 소멸했으며 이것이 가문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큰 공적임을 알 수 있다.

⑤ [C], [D]를 통해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헤어 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원수가 가족과 재회하게 되는 노정에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어.

*근거: ②-⑤, ③-⑬, <보기> ③문장
<보기>에서 '독자는 인물들이 겪은 일들을 서로 연계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다.

[D]에서 부남 태수, 즉 원수의 부친은 '그 뒤에 난리가 났는데, 하관은 황명을 ~ 집은 비었고 처는 간 데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즉, 독자는 [D]에서 전란으로 인해 원수의 부친이 가달을 치러가고 이후 처자식을 찾기 못하는 모습을 통해,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C]에서 원수는 '소자가 한 번 전장에 나아가 ~ 금산사 화주승이라는 노승이 꿈에 나타나, '단원사를 찾아가면 절로 부모와 남자를 만날 것이라 하기에 이리로 온 것입니다.'라고 했다. 즉, 원수가 천자의 명에 따라 전쟁을 치르는 노정에 올랐기 때문에, 꿈에 노승을 만나 결과적으로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 11 정답 ⑤ *소재 및 배경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률 8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장도'로, 부남 태수가 원수에게 채워 둔 물건입니다.
- ㉡: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로, 부남 태수가 비단 주머니에 넣어 원수의 옷깃 속에 넣어 두었던 물건입니다.

즉 ㉠과 ㉡의 기능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해 정답?

⑤ ㉠, ㉡은 모두 인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표가 되고 있다.

원수와 경매 남자가 혼인 관계임을, 부남 태수가 부자지간임을 확인하는 증표

*근거: ①-③, ③-⑬

원수의 모친 양 씨는 경매 남자가 가진 신표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정으로 믿을 만한 표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원수의 '생년월일시'를 적어 비단 주머니에 넣어 옷깃 속에 넣어 두었던 것, 즉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를 확인하였다.

한편, 원수는 부남 태수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진 '장도(㉠)'와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를 준 사람이 바로 부남 태수임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과 부남 태수와의 관계가 부자지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를 부남 태수에게 꺼내 보이면서 자신이 부남 태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오해 오답?

① ㉠은 인물들이 연민의 정서를 주고받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인물들에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 일으키는 수단

*근거: ③-⑦, ⑧, ⑬

원수는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는 빛이 없었고 차고 있던 장도(㉠)'를 만지면서 슬퍼하는 듯하였다.'라고 했고, 부남 태수, 즉 원수의 부친은 원수가 찬 장도(㉠)'를 보고 '문득 자식이 생각나 슬픈 마음이 듭니다.'라고 했다. 즉 원수가 찬 '장도(㉠)'는 원수와 부남 태수 모두에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② ㉡은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윗글에 원수와 부친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음.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는 가족 간의 이별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만들어 둔 물건으로 원수와 부친이 서로를 알아보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윗글에 원수와 부친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③ ㉠과 달리 ㉡은 인물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비현실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은 모두 꿈속 도사의 초현실적 능력과 관련이 없음.

'장도(㉠)'와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는 인물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가능하고 있을 뿐, 인물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비현실적 성격을 나타내거나, 이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 인물들에게 일어난 비현실적 사건은 꿈속에 나타난 도사의 초현실적인 능력인데, 이는 ㉠, ㉡과 관련이 없다.

④ ㉠과 달리 ㉡은 미래에 인물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과 ㉡은 모두 미래에 인물에게 일어날 것으로 예고된 일에 대한 대비책임.

*근거: ③-⑬

부남 태수, 즉 원수의 부친은 '절강의 도사에게 가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 살 이전에 부모와 이별한 것이라고 하기에 혹 이별하더라도 서로 잊지 않기 위해 장도를 자식에게 채우고 생년월일시를 써 비단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라고 했다. 즉 '장도(㉠)'와 '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는 원수가 미래에 가족과 헤어지더라도 서로 잊지 않기 위해 넣어둔 것이다. 따라서 ㉠과 ㉡ 모두 미래에 인물에게 일어날 것으로 예고된 일에 대한 대비책에 해당된다.

E 12 정답 ⑤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 [정답률 59%]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12%	8%	13%	7%	59%

㉠~㉥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원수의 말에 대한 부인과 남자의 긍정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 황제와 도사에 대해 부인과 남자가 고마움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 ㉢: 꿈속에 나타난 도사를 신뢰하는 원수의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 부남 태수가 자신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 ㉤: 원수의 장도가 아들의 것이라고 확인하는 부남 태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인물들의 태도 및 감정을 잘못 파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해 정답?

⑤ ㉤: 부남 태수가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확인했다.

원수가 찬 장도가 자기 아들의 것임을 확인함.

*근거: ③-⑬~⑮

부남 태수가 '이것은 정녕 자식 풍운의 칼이로다'라고 생각한 것을 볼 때, 부남 태수는 원수가 찬 장도가 자신이 '풍운'에게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부남 태수가 원수에게 장도를 얻게 된 출처를 묻는 것을 볼 때, 부남 태수는 원수가 '풍운'의 칼을 어디선가 얻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남 태수가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확인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